9일 Market Index
코스피 5018.85 (-40.84)
코스닥 638.97 (-5.30)
금리(국고채 3년) 3.639 (+0.026)
환율(원·달러) 1347.1 (-9.5)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하나금융그룹

"공장건설 급물살… 민간투자 물꼬 터 전력기반 길 열어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과제

삼성·SK 예상 전력수요 총 15GW
송전망 확충, 공장 일정과 연계 관건
한전 연계 LNG발전소 건설 추진
민간발전 투자예측 가능성 높여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빨라지면서 전력 공급 기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송전망 확충과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유인과 전력거래 제도개선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8일 산업계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대응해 용인 클러스터 4기 공장 첫 클린룸 완공 목표를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겼다. 1기 공장은 2027년 2월 첫 클린룸을 개방하고, 2기 공장은 같은 해 7월 착공해 2029년 6월 개방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수요는 삼성전자 국가산단 9기가와트(GW), SK하이닉스 일반산단 6GW 등 총 15GW로, 양사는 한전과 각각 6GW씩 총 12GW의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준공으로 SK하이닉스 1·2기 공장용 초기 전력 2.83GW 공급 기반은 확보했지만, 3·4기 공장 추가 전력은 2031~2032년 예정된 후속 송전망 확충에 달려 있어 공장 가동 일정과의 연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 확충과 수요지 인근 발전시설 확보를 병행하는 전력공급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공장이나 클러스터 인근에 발전시설을 두는 방식은 송·배전상의 문제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한전은 삼성전자 국가산단에 LNG 발전소를 우선 건설하고 송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전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이 각각 1기가와트(GW)씩 총 3GW의 청정수소 혼소 가능 LNG 발전소를 내년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2030~2038년 1단계 전력을 공급한 뒤 북천안~용인 송전선로 연결과 변전소 계통 보강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 산단에서는 SK이노베이션 E&S와 한국중부발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1050메가와트(MW) 규모의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 투자에는 안정적인 수요와 투자비 회수 가능성이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인천 LNG 복합발전소를 운영하고 광양 LNG터미널 9~12호기 저장탱크 부지를 확보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사업자들도 신규 발전소 건설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간 발전업계는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LNG 전력거래 다변화를 촉구한다. 현재 LNG 발전사는 생산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수요기업은 한전에서 공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되면 발전사는 장기 판로를 확보하고 수요기업은 전기요금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만 허용돼 LNG 발전은 제외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1~2032년 신규 LNG 열병합발전 필요물량 1.3GW에 용량시장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 진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 '소방대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역대 최대'

공정위 "최혜대우 요구, 담합과 비슷"
시정명령과 각각 3311억·3008억
양사 "위법성 없다" 법적대응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에 배달앱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양사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행위가 담합과 비슷한 경쟁 제한 효과를 낳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9일 배민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약 3311억 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양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92.89%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 할인 혜택 등 6가지 조건의 최혜대우를 요구하며 불응 시 '와우매장'에서 배제했다. 배민 역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불응 시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시장지배적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 사례로 보인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과징금 약 1554억 원)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과징금 약 154억 원)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줄이고 울트라콜(정액제)을 폐지하는 등 자체배달 전환을 강제해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판단이다. 쿠팡에 대해서는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약관의 시정이 명령됐다.

이같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양사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으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30년 만에 최대 외식 물가 상승률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소비자도 점주도 원했던 상생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현대차, 미래 첨단산업 '원팀' 구축

경영진 초청 '감사의날' 행사
"현대 비전, 삼성 기술력 만나
새로운 가치·가능성 열길 기대"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를 비롯한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용 반도체, 전장부품 중심의 협력을 로보틱스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넓히고 양 그룹의 기술 역량을 결집하는 '원팀' 체제를 모색한다.

삼성은 9일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에서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을 초청해 'HMG Appreciation Day'를 개최했다. '미래를 향한 One Harmony'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서강현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 등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삼성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사장,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등 계열사 경영진이 함께했다. 양 그룹 경영진과 임원, 배우자 등 총 177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양사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차그룹의 혁신적인 비전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도 "전장과 오디오, 배터리 등 차량 부품 분야를 넘어 로봇과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행사장에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핵심 기술을 전시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 셀팩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전기는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과 차량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 전장부품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하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통합제어장치(CCU), 통신제어장치(TCU) 등 전장 솔루션을 전시했다. 완성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메트로 한줄뉴스



▲강신철,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 만나 통합 논의…"사관학교 없앨 수 없어" /사진 뉴시스

▲尹·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상고심 배당…주심에 김성수 대법관

▲통일부 "北 김성남 방중, 中 5중전회 결과 공유 및 고위급 소통"

▲노동부, 동희오토·하청 3곳 압수수색…'노조 탈퇴 강요' 혐의

▲전국 학교 비정규직 27일 총파업 예고…"임금 차별 해소"

▲경찰 "공군 1호기 정보 유출 경위 규명 중"…국제공조·관련자 조사

신세계, 美·日 이어 동남아 영토 확장… K-패션 위상 높인다

대만·말레이에 '하이퍼그라운드' 양국 명품 쇼핑몰·백화점에 팝업
K-패션·뷰티 등 브랜드 순차 운영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 대만 팝업스토어 현장.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 대만 팝업스토어 현장. /신세계백화점

국내 유망 패션·뷰티 브랜드를 발굴해 세계 주요 도시에 소개해 온 신세계백화점의 해외 진출 플랫폼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Hyper Ground)'가 대만과 말레이시아에 동시 상륙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미국 뉴욕 허드슨야드와 일본 도쿄 시부야 등 글로벌 거점에 이어 동남아시아 및 중화권 핵심 상권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K-브랜드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9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하이퍼그라운드는 대만 타이베이의 명품 쇼핑몰 '브리즈센터'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차세대 랜드마크인 '세이부(SEIBU) 백화점'에 각각 패션·뷰티 팝업스토어를 잇달아 오픈한다.

이번 대만 팝업은 타이베이 동취 핵심 상권에 위치한 브리즈센터 1층 명품관에서 열린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한 1층 공간에 K-패션 브랜드가 들어선 것은 한국 패션의 글로벌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신세계는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간결한 '뉴 클래식' 스타일의 '렉토(RECTO)'를 시작으로 '마리끌레르', '인사일런스(INSILENCE)' 등 감도 높은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6개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말레이시아 팝업은 쿠알라룸푸르의 신흥 금융지구 TRX(Tun Razak Exchange)에 들어선 쇼핑몰 '더 익스체인지 TRX' 내 세이부 백화점 1층에서 진행된다. 고소득 직장인과 젊은 소비층,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권 특성에 맞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2030 세대와 K-팝 팬덤을 겨냥한 K-뷰티 중심 브랜드 10여 개를 릴레이 형태로 운영한다. 첫 회차에는 패션 브랜드 '마리끌레르', '탄산마그네슘'과 뷰티 브랜드 '헤드스파7', '파이브바이브', '딘토'가 참여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신세계의 행보를 두고 한국 백화점의 역할이 단순한 '수입 브랜드 유치'에서 '국내 유망 브랜드의 해외 판로 개척'으로 전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 신세계백화점은 현지 유통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시장성을 검증한 뒤 향후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확단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뉴리테일 담당 박상언 상무는 "올해 뉴욕과 시부야에 이어 타이베이와 쿠알라룸푸르에서 하이퍼그라운드를 선보이며 해외 영토를 확장하게 됐다"며 "각 시장 특성에 맞춘 K-브랜드를 꾸준히 소개해 경쟁력 있는 국내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전닉스의 추락… 증권사 목표가 '요지부동'

삼성전자 주가, 최고가의 50% 하락
한투·IBK투자 2곳만 목표가 하향
SK하이닉스는 62% 하락 했지만
투자의견 '매수' 되레 장밋빛 전망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시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과 '블루웨이브'(미국 민주당 압승)가 반도체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의 낙관론은 여전하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목표주가를 유지하거나 줄줄이 올리고 있다. 반면 투자자 사이에서는 "증권사 목표주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는 의문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만99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1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2주 최고가 대비 각각 50.03%, 62.16% 하락했다.

주가는 무너졌지만 증권사 목표주가는 꿈쩍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기준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47만2381원, SK하이닉스 305만4286원이다. 목표가대로라면 삼성전자는 148.75%, SK하이닉스는 168.86% 더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지난 2일 KB증권은 "내년에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의 확산이 메모리 수요 저변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라면서 "기존에도 수요가 강했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 아니라 키밸류 캐시(KV Cache)와 데이터 저장을 위한 고용량 D램 및 낸드(NAND)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앙처리장치(CPU)의 수요도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60만원으로 유지했다.

다른 대부분 증권사도 목표주가는 유지하고 있다. 목표주가를 내린 곳은 한국투자증권(57만원→44만원)과 IBK투자증권(46만원→35만원) 두 곳뿐이다.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장밋빛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초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0만원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이 증권사 고영민 연구원은 "장기공급계약(LTA) 출하와 매출 비중은 올해 말까지 40%, 내년 50% 수준 전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619조원, 영업이익은 73% 늘어난 507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SK증권은 "2030년까지 메모리 수요 우위 국면의 전망을 밝혔고 AI 인프라 투자의 강력한 명분과 메모리 수요의 구조 등을 볼 때 실적 가시성과 안정성 제고가 동반되는 국면"이라며 목표주가를 400만원으로 유지했다.

그나마 IBK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4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하향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하락장에서도 증권사의 낙관론은 꺾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시기가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본격화된 2021~2022년이다. 당시 '국민주'로 떠오른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2021년 1월 11일 장중 9만6800원까지 오르며 당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곧 '10만 전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같은 날 증권가에서는 최고 12만원 목표주가(한국투자증권)도 제시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가는 장기간 내리막을 걸었다. 반도체 업황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다. 그럼에도 증권사의 낙관 전망은 한동안 유지됐다.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 넘게 7만원을 밑돌던 2022년 4월에도 증권사 평균 목표주가는 여전히 10만원대에 머물렀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목표가만 보면 '바닥'인데, 주가는 외국인 매도에 크게 출렁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목표가라는 결과보다 그 숫자를 떠받치는 전제를 보라고 조언한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 반도체주 약세는 2028년 이후 이익 전망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며 "목표주가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기계약(LTA)과 AI 수요 및 수익성,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의 조달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AI 인프라 투자지속성 요인들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사 목표주가는 기업의 미래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산출한 중장기 추정치이지 현재 시장에서 보장되는 주가가 아니다"라며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주가 자체보다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 반도체 가격, HBM 수요,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 외국인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주가가 급락하는데 과거의 낙관적인 전망만 유지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AI 인프라 투자 중심 경제 성장세 양호"

KDI, 경제동향 11월호
"다만 소득증가 효과 확산은 미미
고유가에 따른 가계부담 지속"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제 관련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타 부문으로의 확산은 미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대외 수요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과 투자가 높은 증가를 이어가는 가운데,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타 부문도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동 지역 갈등 및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위험도 여전하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의 일시적 위축이 풀리고 건설업 부진도 다소 완화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9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1.1% 늘어 전월(2.3%)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추석 시점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2.5일 감소한 영향 등으로,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3.0%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0.3%)와 기계장비(17.9%)의 호조에 더해, 자동차 부문 생산 차질이 해소되면서 1.2% 늘었다. 서비스업생산도 1.8% 증가했다.

소비는 최근의 부진을 일부 만회했으나 기조적인 개선 흐름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다.

9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0.8%)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보다 0.4% 감소했다.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3.6% 늘어 7~8월의 부진을 일부 만회했지만 6월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도 1.1%로 전분기(2.4%)보다 낮아졌다. KDI는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물가 부담과 그간의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양사, 창업 세대부터 신뢰관계 점진적 발전

›› 1면 '삼성-현대차, 미래 첨단…'서 계속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협력은 창업 세대부터 신뢰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1985년 11월 투병 중에도 정주영 현대차그룹 창업회장의 고희연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백자를 선물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도 2001년 3월 당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 초청해 단독 회동했고, 이후 양대 그룹의 협력이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0년 두 차례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논의했고, 2023년 삼성SDI와 현대차의 첫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으로 사업 협력이 구체화됐다.

이번 행사는 사업별·계열사별 협력을 그룹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기술과 현대차그룹의 완성차·자율주행·로보틱스 역량이 결합하면 인공지능(AI)을 산업 현장과 일상에 적용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양사는 각자의 핵심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 산업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접점을 확대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송전망 '병목 해소' 관건… 도로 공동건설·자가발전 주목

용인 반도체 전력망 구축 난항

주민 반발에 송전선로 건설 지연
도로·송전망 공동건설로 공기 단축
사업기간 10년서 5년으로 줄여
산단 자가발전으로 송전 부담↓
LNG 열병합 활용·탄소중립 과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망 건설 기간 단축과 수요지 인근 발전시설 활용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거리 송전선로는 주민 반발과 인허가 절차, 전력기기 조달 문제로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송전망 공동건설과 산업단지 내 자가발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 확대에는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 345kV 송전선로 주민 반발… 전력기기보다 건설 병목 심각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연계된 345킬로볼트(kV) 신계룡~신천안(옛 북천안) 송전선로 사업은 충청권 일부 주민 반발로 입지선정위원회 해산과 후보 경과지 부결을 거쳤다. 지난달 27일 대안위원회가 최적 경과지를 결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시급성으로 따지면 송전선로 건설이 해결하기 더 어렵고 난도가 높은 과제"라며 "송전선로는 주민 수용성이나 여러 건설 과정에서 지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변압기 등 전력기기는 세계적인 공급 부족에도 국내 제조업체를 통한 조달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수 교수는 국내 제조업체와 적정 가격 및 공급 우선순위를 협의하면 전력기기 확보에 따른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 도로·송전망 공동건설로 공기 단축 … 산단 내 자가발전도 대안

송전망 구축에 따른 주민 반발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도 추진된다. 경기도와 한전은 지방도 318호선 이천 설성면~용인 원삼면 구간 27.02k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면서 도로 지하에 송전선로를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동건설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중복공사 비용도 2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거리 송전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는 산업단지 내 자가발전시설 구축이 제시된다.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송전선로 부족에 따른 제약을 지적하며 산단 내 자가발전을 대안으로 꼽았다. 김철현 연구위원은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도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열병합 자가발전 설비 2개가 들어왔다"며 "자가발전은 기업이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만큼 국가 전력망 부족 문제와는 구분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공장이나 산업단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온사이트 발전을 활용하면 장거리 송전망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시설과 공장을 연결하는 단거리 전력시설은 필요하지만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에 비해 주민 수용성과 송·배전시설 구축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 LNG 열병합, 전력·열 동시 공급 효율… 탄소중립 정합성은 과제

반도체 공장의 전력과 공정용 열 수요를 함께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LNG 열병합발전의 활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전력망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별도 보일러로 열을 생산하는 방식과 달리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열보일러를 통해 열을 공급하고 배전망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것보다 열병합발전으로 전기와 열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LNG 발전소는 통상 30년 가량의 운영 기간을 고려해 건설하는 만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 교수는 "LNG 복합발전이나 열병합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탄소중립 목표와의 일치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부 LNG 열병합발전으로 공급하면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열병합발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젠슨 황 '中 정보기관 접근 의혹'… 삼성·SK, HBM 공급 변수

엔비디아 이사회 독립조사 착수
美 의회도 정보 유출 가능성 조사
AI 가속기 생산·투자 지연 우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중국 정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앨리스 황이 2024년 6월 대만 타이베이의 한 술집에 나란히 앉아 있다. /링크드인 캡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의 접근 의혹이 미국 의회의 조사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9일 엔비디아에 따르면 사내 이사회는 8일(현지시간)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독립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사회는 "국가안보나 엔비디아의 기밀이 침해됐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의혹은 황 CEO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 앨리스 황과 혼외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황 CEO는 혼외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기술 유출이나 불법적인 정보 제공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미 하원도 황 CEO에게 비공개 설명회 출석을 요구하며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앨리스 황이 근무했던 메가스피드 역시 미국의 수출 제한을 받는 AI 반도체를 중국에 우회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로 황 CEO의 거취와 엔비디아의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을 주도하는 만큼 제품 출시나 투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위탁생산을 담당하는 대만 TSMC는 물론 메모리와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도 반영됐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미국 정규장 외 거래에서 직전 종가 대비 약 3.4% 하락했다.

한편 이번 의혹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이미 첨단 AI 반도체와 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우회 공급 단속이 강화되면 국내 메모리 업체도 최종 사용처 확인과 수출 허가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반도체 판매는 이미 제한적인 수준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최근 분기 중국에 출하한 H200 매출은 데이터센터 부문 전체의 1%에 못 미쳤다. 국내 HBM 수요에 미칠 영향도 중국향 판매 감소보다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의 이동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생산 계획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은 엔비디아의 주요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만큼 신제품 양산 일정과 생산 물량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도 엔비디아의 투자 결정까지 지연될 경우 차세대 HBM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중장기 생산 계획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와 내년 HBM 공급 물량을 협의하고 장기계약을 통해 판매 기반을 확보한 만큼 단기간에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부터 HBM4가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공급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사업 일정 변화가 실제 HBM 발주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도 HBM4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이 AMD 등 경쟁사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경우 이들과 협력하는 국내 메모리 기업의 공급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 발행주체·지분규제 쟁점

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법 막바지 협의
은행권, 원화코인 발행·상용화 준비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스테이블코인이 낮은 수수료와 송금 편의성을 앞세워 기성 금융의 인프라로 편입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와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제도화를 위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시권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정부안 공개를 위한 막바지 협의에 돌입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준비가 됐고, (정부안 발표에 앞서) 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도 금융당국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을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선결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강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달 2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 금융권, '원화코인' 준비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지만 금융권은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화폐가치에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송금 편의성이 높고 수수료가 낮다는 특성이 주목받으며 간편결제·대금지급 등 기성금융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페이팔·VISA·마스터카드 등 국제 결제 플랫폼들은 이미 결제 네트워크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을 구축했다.

국내 금융권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과 원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이미 기술 검증(PoC), 컨소시엄 구성,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원화 코인의 발행 및 상용화 준비를 본격화했으며, 증권가에서도 내년 2월 도입되는 토큰증권(STO)과 원화코인을 연결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통화주권에 대한 우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 '은행 컨소시엄' 등 쟁점 여전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을 위한 막판 쟁점으로는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컨소시엄'이 꼽힌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만큼, 금융기관과 유사한 지분률 제한을 도입해 대주주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대주주 지분율은 최대주주를 기준으로 25.5%(업비트)~97%(디지털엑스) 수준이다.

다만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소유권 침해 논란과 기존 창업자의 경영권 불안,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 강화 등을 이유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 컨소시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확보하도록 정하는 방안이다. 은행이 '원화코인'의 지급을 보증해 과도한 평가절하나 지급 중단을 예방하고, 발행량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중앙은행(한국은행)의 통화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LFP 라인에 소듐 개발까지… ESS 배터리 소재 승부수

⑭ 에코프로

EcoPro 에코프로

반도체·인공지능(AI)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발전량과 전력 소비의 변동에 대응할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ESS용 배터리 소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리튬인산철(LFP) 설비를 확보하고 소듐이온 소재를 개발하는 에코프로의 공급 기회도 주목된다. 중국 중심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가격 경쟁력과 고객 물량을 확보하고 개발 기술을 양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ESS용 소재 다변화… NCA 계열 양극재
오창에 연산 4000톤 LFP 설비 확보
생산기반 토대로 구매물량 확보해야
솔브레인·애경케미칼과 K-소듐 개발

LFP 양극활물질, 中 업체와 경쟁 치열
기존 설비로 LFP 수요 대응 검토도
차세대 소재 양산, 수익구조 마련 필요

◆ 전력 공급·소비 변동 대응…저장설비 확대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전력망 혁신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태양광 3기가와트(GW), 변전소 ESS로 1.6GW를 추가 연결할 방침을 제시했다. 낮에 집중되는 태양광 발전량을 저장했다가 밤에 공급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ESS는 발전량이 많은 시간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공급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고 산업시설의 급격한 전력 소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하의 급격한 변동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하의 변동을 계통에 넘기지 않게 버퍼의 역할로서 ESS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22일 총 1180메가와트(MW) 규모의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했다. 선정 사업자는 2029년 2월까지 육지 1100MW와 제주 8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입찰은 오는 11일 마감한다.

사업 대상은 기존 계통관리변전소에서 ESS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른 변전소까지 넓혔다. 제주에는 기존 15년 계약 외에 25년간 하루 두 차례 충·방전할 수 있는 장수명 설비를 위한 25년 계약 방식도 추가했다.

세계 시장도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에너지 리뷰 2026'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배터리 저장설비 신규 설치는 108GW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신규 설치의 약 80%는 전력계통용이었다.

◆ LFP 생산기반 확보…소듐 소재 공동개발

에코프로그룹에서 양극재 사업을 맡는 에코프로비엠은 ESS용 소재 다변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ESS용 판매 제품은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계열 양극재다.

올해 2분기 ESS 매출은 453억원으로 1분기 979억원보다 약 54% 줄었다. 회사는 실적발표 자료에서 미국 ESS향 물량 이원화를 감소 배경으로 제시했다. ESS 시장 확대가 회사의 판매 증가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7월 정정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충북 오창에 연산 약 4000톤 규모 LFP 생산라인과 무전구체 LFP 개발용 200톤 파일럿 설비를 확보했다. 무전구체 직접합성은 인산철 전구체를 거치는 기존 방식과 다른 공법이다. 회사는 비중국 원료를 활용해 중국산 전구체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공시에서 4000톤 생산라인을 실제 가동하며 공정 수율과 제품 균일성을 관리해 왔고, 고객 평가용 샘플도 일부 생산·공급했다고 밝혔다. 생산기반을 판매 확대로 연결하려면 고객 평가와 공급계약을 거쳐 안정적인 구매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차세대 소재로는 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하는 소듐이온 양극재를 개발한다. 지난 7월 공개한 파일럿 생산라인은 연산 1000톤 규모다. 회사는 소듐이온 배터리의 적용 시장으로 ESS와 보급형 전기차를 제시했다.

같은 달에는 솔브레인·애경케미칼과 'K-소듐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와 양산기술을, 솔브레인이 전해액·첨가제를,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재를 맡는다.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6' 에코프로 부스 사진. /에코프로



K-소듐 얼라이언스 출범 사진. /에코프로비엠

세 회사는 개발품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배터리 제조사에 맞춘 소재 조합을 공동 제안할 계획이다. 개별 소재뿐 아니라 배터리 안에서 함께 작동할 때의 성능을 높여 고객의 개발·검증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 가격·고객 확보 관건…상용화·시장 여건 과제

IE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배터리 저장설비 신규 설치에서 LFP 비중은 약 90%였다.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ESS에서는 이동하는 전기차보다 무게와 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작아 가격과 수명 등이 중요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ESS용은 고정돼 있고 장소를 넓게 할 수 있다"며 "에너지밀도가 떨어지는 대신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다. IEA는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에서 LFP 양극활물질 시장이 중국에 거의 집중돼 있으며 낮은 수익성과 치열한 경쟁이 신규 투자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 7월 공시에서 약 3만 톤 신규 LFP 양산공장의 투자 시점과 규모를 재검토하고 기존 설비로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메탈 가격 하락과 신규 고객 확보의 어려움 등을 투자 보류 배경으로 들었다.

공시에는 신규 파트너와의 계약으로 물량이 구체화되면 투자를 재개할 수 있지만 재개 여부와 시기·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재 개발과 생산기반 확보를 넘어 안정적인 판매 물량을 확보해야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차세대 소재도 개발 성과를 양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김 교수는 "산학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장설비의 설치·운영이 이어질 수익구조도 필요하다. ESS 사업자가 충·방전으로 얻을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설비 투자가 늘고 배터리·소재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잉여 전력과 팔려고 하는 비싼 전력 간의 가격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ESS가 시장에서 경제성을 갖지 못하고 중앙계약시장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전력시장 자체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돼야 ESS도 비즈니스의 기회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본사 전경. /에코프로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종부세 14억 놓고 당청 이견… 부동산 세금 갈등 재점화

민주당 "거주 상관없이 14억 적용"
청와대, 추가 수정에 부정적 입장
당청, 이달 말 최종 조율 시한


지난 8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일괄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거주자 우대를 골자로 한 기존 세제 개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의 이 같은 요구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2028년 4월 총선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고 있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세제가 당청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민주당 지도부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에 반대하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에서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상향한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한 차례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 차례 정책을 수정한 정부로서는 추가 양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엔 2028년 총선이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법안과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에 종부세 등 연이어 세금이 부과된다"면서 "(종부세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고,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며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 및 정책 일관성 기조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도 그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로서는 여당의 추가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는 인식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한도 14억원' 요청에 난색을 표하자, 당청 간 종부세를 두고 갈등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도정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1월 3~4주차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논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당정청 최종 조율 시한을 이달 마지막주로 제시했다.

이 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향후 당청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에 세제 개편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지역구에서 체감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민심의 압박이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특검법, 李 탈옥법"

청와대 앞서 국힘 최고위원회의
"대통령, 법안 수용할 경우 탄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이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규모와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죄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검사를 포함한 300명의 인원, 3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탈옥에 실패한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특검·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는 이 특검이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조작 수사로 감옥에 넣게 될 것"이라고 보탰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김민석 "구미 제조업 재도약 뒷받침"

구미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북 제조업 중심지인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해 있는 경북에서 구미가 AI(인공지능), 로봇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중심이 돼서 경북 전체 활력을 살리는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호텔 금오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경북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청년을 살리고, 구미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3000여 기업이 구미 국가산단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50여년 간 제조업 중심지의 역할을 한 구미는 전자기계, 장비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 재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삼성전자 '5조 보험' 가입… 삼성생명 운용 역량 시험대

약정기간 3년, 공시 이자율 4.25%
삼성생명, 본업 넘어 자산운용 강화
해외 자산운용사 지분취득 역량 확장



/삼성생명

삼성전자가 삼성생명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5조원의 보험료 납입을 마쳤다. 보험료 유입과 함께 계약상 지급 의무도 발생하는 만큼, 이번 계약의 이익 기여는 운용 성과와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9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플래티넘저축보험'의 계약 체결과 보험료 납입을 완료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9일 공시한 보험료는 5조원이며 약정기간은 3년이다. 공시상 이자율은 '납입보험료 제비용 차감 후 단리환산' 기준 4.25%다.

삼성전자는 거래 목적을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 자금운용"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번 거래에 대해 기존에 판매하던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보험 본업과 자산운용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도 실행 방향으로 제시했다.

보험영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신계약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다. 회사는 지난 2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신계약 CSM을 최소 3조2000억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전년 동기보다 20.4% 증가한 1조7175억원으로, 연초 제시한 최소 목표액의 53.7%에 해당한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아직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미래 서비스 이익을 뜻한다. 상반기 신계약 CSM 가운데 보장성보험에서 확보한 금액은 1조6426억원이다. 건강·종신보험 판매를 통해 미래 이익을 쌓는 영업 기조가 반영됐다.

이번 법인보험의 5조원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신계약 CSM과 측정 대상이 다르다.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은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수취액을 보험수익에서 제외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유입액을 그대로 매출이나 순이익, CSM 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운용할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의무를 수반한다. 보험사가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려면 운용으로 얻는 수익에서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익과 사업비·위험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고 이익을 남겨야 한다. 실제 환급 조건에 맞춰 지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상반기 연결실적에서는 투자 부문의 기여가 두드러졌다.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보험서비스손익은 533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9% 감소한 반면, 투자손익은 1조8580억원으로 82.0% 늘었다. 투자손익에는 배당금 수익과 자회사·연결 손익 증가 등이 반영됐다. 이런 연결손익은 개별 보험계약의 운용수익률이나 채산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해외 운용 기반을 넓히는 결정도 내렸다. 지난 7월 삼성자산운용이 보유한 뉴욕·런던법인 지분 전량을 취득하기로 했다. 당시 공시 기준 취득 예정 금액은 합계 약 1373억원이다. 회사 전반의 해외 사업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계약기간에 걸쳐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운용수익과 비용, 계약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함께 관리하는 역량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가계대출 빗장 걸었다… 중·저신용자 '한숨'

은행권, 신규 신용점수 6개월째 상승
가계대출 차주 신용점수 평균 928점
시중은행 944점, 지방은행 903점
중·저신용자 1금융권 대출 사실상 막혀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에도 은행권의 강도 높은 건전성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 문턱이 낮았던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의 1금융권 대출 이용은 사실상 막혔다.

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국내 13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토스·케이)에서 신규 취급한 주담대 포함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KCB·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는 928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의 926점보다 2점 올랐고,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업권별로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9월 한 달 동안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점을 기록했다. 올해 1월의 947점과 비교해 3점 내린 수준으로, 5대 은행의 대출 문턱은 올해 들어 940점대 중반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5대 지방거점은행(iM·부산·경남·광주·전북)이 9월 한 달 동안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03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의 895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8점 올랐다.

3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토스·케이)의 대출 문턱도 가파르게 높아졌다. 3개 인터넷은행이 지난 9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3점으로, 지난 1월의 931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12점 가량 상승하면서 5대은행 평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대형 시중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운 중신용자(800점대)·중고신용자(900점대 초반)의 대출창구로 여겨졌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기준 900점은 과거 신용등급제로 환산하면 최상위 수준인 1~2등급에 해당하는데도, 신용점수 인플레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겹치면서 1금융권 대출 이용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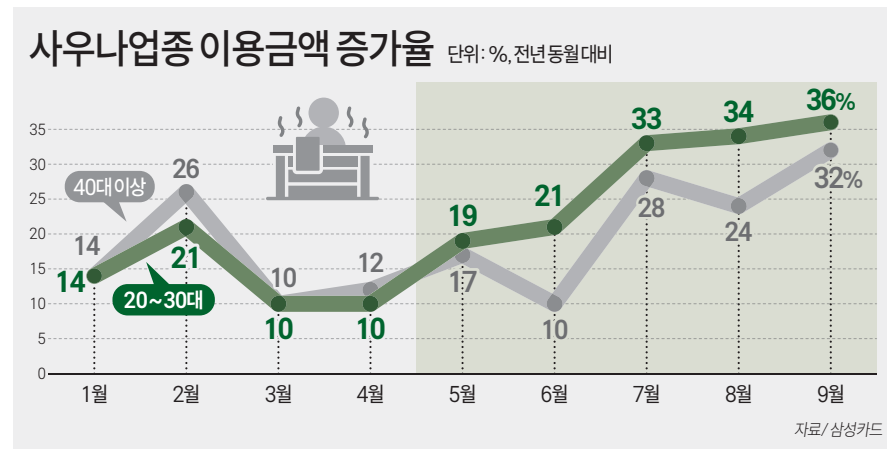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가계대출 공급 부족을 이유로 은행권의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도 대출 문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은행권 전반의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강도 높은 건전성 관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5대은행의 가계 연체율은 0.33%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의 0.30%와 비교해 0.03%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1.23%로 0.26%p 급등했다. 인터넷은행들은 3분기 경영실적을 아직 공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3분기와 비슷한 연체율을 유지하며 강도 높은 건전성 관리가 요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문턱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고, 은행들도 우량자산 중심의 영업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서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태도 강화는 대출 영업 감소를 의미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로 은행의 대출 여력은 늘었지만, 건전성 관리를 우선시 하는 은행권의 영업기조에 따라 신용대출을 비롯한 일반대출은 강화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에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대부분의 은행이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기조도 여전해 당분간은 가계대출 문턱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자료/삼성카드

2030세대 핫플 떠오른 '사우나·찜질방'

삼성카드, 소비 트렌드 분석
9월 서울·경기 사우나 이용액 36%↑
40대 이상 증가율 32% 웃돌아
웰니스 트렌드 관리→회복 진화

중장년층이 주로 찾던 사우나·찜질방·쑥뜸 업종에서 최근 2030의 카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휴식과 회복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다. 웰니스 트렌드가 단순 식단, 운동과 같은 '관리'의 영역에서 '회복'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삼성카드 데이터 랩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30의 서울·경기 내 사우나 업종 이용금액 증가율은 지난 9월 36%인 것으로 집계됐다. 40대 이상 증가율(32%)을 웃돈다.

젊은층의 사우나 이용금액 증가율은 지난 5월부터 중장년층을 웃돌기 시작했다. 2030세대 증가율은 4월 10%에서 5월 19%로 뛰며 40대 이상(17%)을 앞질렀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9월에는 36%까지 증가했다. 같은 달 40대 이상의 증가율은 32% 수준에 머물렀다.

효소, 쑥뜸 관련 가맹점 이용도 증가세다.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30대 해당 가맹점 이용건수는 지난 6월 1.5배에서 9월 2.6배로 확대됐다. 반면 40대 이상은 같은 기간 0.9배에서 1.1배로 소폭 증가했다.

젊은 세대에서 식단과 운동뿐 아니라 휴식과 심신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리커버리노믹스'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다. 리커버리노믹스는 회복을 뜻하는 리커버리(recovery)와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다. 사우나와 찜질방 등은 중장년층의 휴식 공간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젊은 층으로 소비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사우나 열풍은 남대문 시장 소비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목욕·사우나 용품 구매처로 주목받는 남대문 시장의 20·30대 생활용품 업종 이용건수는 지난해 1월 대비 지난 9월 14.8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금액은 4.8배 늘었다.

반면, 중장년층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40대 이상 고객의 남대문 시장 생활용품 업종 이용건수는 3.2배, 이용금액은 1.7배로 각각 소폭 늘면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식단과 운동을 중심으로 한 20·30대의 웰니스 소비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샐러드·포케 등을 판매하는 건강식 전문점의 20·30대 이용률은 40대 이상보다 22%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건강관리 식품 전문몰에서는 젊은 층 이용률이 40대 이상을 87% 웃돌았다.

동시에 젊은 층은 늦은 밤 술자리를 피하고 있다. 올해 1~9월 20·30대 심야시간(22시~3시) 요식·주점 업종 이용건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023년 대비 약 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40대 이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스포츠 업종에선 젊은 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1~9월 2030 이용률은 20%로, 40대 이상(14%)을 6%p(포인트) 상회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핀다, 23일까지 19개 직무 공개채용

핀테크 기업 핀다는 이달 23일까지 총 19개 직무를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핀다가 저축은행 인수 후 처음 진행하는 그룹 전 직군 공채다. 핀다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인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제품·기술, 보안·개인정보, 준법·법무 등이다. 주요 직군은 ▲준법감시인 ▲AI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 ▲보안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제품 엔지니어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디자이너 ▲개인정보보호 담당 ▲법무 담당 ▲경영지원 담당 ▲재무회계 담당 등이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직무 인터뷰, 문화 적합성 인터뷰 순이다.

한편, 핀다에 빠르게 합류하는 인재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핀다는 오퍼레터 수령일 기준으로 4주 이내 입사하는 지원자에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혜민 핀다 대표는 "이번 채용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넘어, 기존 금융의 일하는 방식과 고객 경험 자체를 바꿔 나갈 동료를 찾는 과정"이라며 "정해진 방식에 안주하기보다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며,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집요하게 집중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삼성, 내년 HBM 1위 전망… SK하이닉스와 주도권 경쟁 격화

카운터포인트·트렌드포스, 역전 예상
양사 점유율 격차 33%P서 17%P 축소
삼성, HBM4 매출 전분기比 3배↑
SK, 수율 개선·생산능력 확대 대응
고객사 확보·양산 효율이 승부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가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양사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2027년 HBM 시장 1위에 오를 것으로 진단했다. 삼성전자의 HBM4가 고객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트렌드포스도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2027년 HBM 시장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HBM4 공급 확대와 생산능력 확충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 격차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집계에서 지난해 3분기 글로벌 HBM 시장 매출 기준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6%, 삼성전자 23%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에는 각각 50%, 33%를 기록하면서 격차가 33%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좁혀졌다.

삼성전자는 HBM4를 앞세워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 데 이어 3분기에는 HBM4 매출이 전 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HBM 매출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도 60% 수준까지 확대됐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삼성전자는 D램 생산능력이 큰 만큼 HBM 공급 확대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HBM 수요가 늘어나면 삼성전자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전체 D램 시장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의 HBM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3분기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7년 HBM 공급 목표 물량에 대한 가격 협상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는 내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HBM4 수율 개선과 생산능력 확대로 시장 선두 유지에 나서고 있다. 올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HBM4의 전공정과 후공정 수율이 업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한 수율 목표를 웃돌면서 내부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 4분기에는 HBM4의 출하량과 매출이 모두 기존 주력 제품인 HBM3E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고객사들이 요청한 HBM 물량은 공급 가능 물량의 2배를 넘는다. 2027~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50% 이상에 대해서는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과 협의 중인 고객사 수요를 합산하면 2029년까지 D램과 HBM 물량이 사실상 완판된 상황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BM 수요처가 확대되는 점도 시장 경쟁의 변수로 꼽힌다.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구글 등 주문형 반도체(ASIC) 개발업체들의 HBM 수요도 늘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2027년에도 엔비디아의 수요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ASIC 업체들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사는 HBM 수요 확대에 맞춰 고객사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7년부터 맞춤형 HBM 제품의 샘플 공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30일 인사에서 개발총괄을 맡았던 안현 사장을 신설 미주총괄에 선임했다. 미국 주요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HBM4 양산과 공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만큼 향후 시장점유율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생산 물량을 늘리고 신규 고객사에 공급을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율과 양산 효율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울산항,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허브 도약

91만5000㎘ 저장시설 활용
LNG선 도입·메탄올 급유 확대
부산항 연계·북극항로 선박 유치


울산 북항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전경. /KET

울산항이 기존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저장·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LNG 벙커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메탄올·암모니아 상업 급유를 확대하는 한편, 부산항 연계와 북극항로 선박 유치를 통해 벙커링 수요 확보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병호 울산항만공사 북극항로 TF 부장은 지난 6일 울산항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통 연료를 포함해 친환경 선박연료 저장·공급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기존 에너지 시설과 배후 산업단지 수요를 활용해 신규 투자 부담을 줄이고, 울산항 저장 연료를 부산항 이용 선박에도 공급하는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동남권 통합 벙커링 서비스를 구축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울산항 핵심 기반시설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정부의 동북아 에너지 허브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조성된 석유·LNG 복합 터미널이다. 한국석유공사(52.4%)와 SK가스(47.6%)가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석유제품 탱크 12기(27만㎘)와 LNG 탱크 3기(64만5000㎘) 등 총 91만5000㎘의 저장시설을 구축했다. 모든 탱크의 이용·임대계약도 완료됐다.

이 인프라를 활용해 SK가스는 선박 간 이송(STS) 방식의 LNG 벙커링을 추진하고, KET는 부두와 LNG 연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도 SK가스와 벙커링 사업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2027년 하반기 LNG 벙커링선 도입을 목표로 공급체계를 준비 중이다.

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 선박연료 공급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항은 지난 2023년 7월 A.P. 몰러-머스크의 2100 TEU급 컨테이너선에 그린메탄올을 공급하고, 11월에는 1만6200TEU급 선박에 STS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후 상업 벙커링 20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준비 수준(PRL)은 7단계에 도달했다.

암모니아도 기존 액체화물 인프라를 활용해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항은 연간 약 70만t으로 국내 암모니아 수입량의 60%를 처리하며, 지난 4월 벙커링 실증에 이어 10월 초대형 가스운반선 대상 상업 벙커링을 완료했다. 현재 PRL은 6단계로, 오는 2029년 7단계 도달을 목표로 공급체계를 구축 중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연료 공급시설 확충과 함께 벙커링 이용 선박을 늘리기 위해 북극항로 선박 유치에도 나섰다. 2016~2025년 북극항로 경유 울산항 입항 실적은 18항차(7만2874t)로, 올해 4항차가 추가돼 누적 22항차를 기록했다. 올해 입항한 4척 중 3척은 울산항에서 벙커링을 이용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운항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 선사 로열 바겐보르그(Royal Wagenborg), 한국해양진흥공사와 3자 업무협약(MOU)을 맺고 운항 경험과 화주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 기사는 (재)바다의품과 (사)한국해양기자협회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울산=유혜온 기자 dhaledhale@

LG AI연구원, 'K-엑사원 2.5' API 무료 개방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2026'서 발표
독자 AI 모델 추가 학습해 성능 개선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인 'K-엑사원 2.5'를 무료 개방한다.

LG AI연구원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2026'에 참여해 'K-엑사원 2.5'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PI는 K-엑사원 플랫폼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AI 모델을 직접 써보고 서비스에 적용할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K-엑사원 2.5'는 지난 8월 공개한 독파모 2차에 추가 학습을 적용한 기술 검증 모델이다.

LG AI연구원은 자체 평가 결과, 'K-엑사원 2.5'가 AI가 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 가중치 공개형 모델과 겨룰 만한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병원 맞춤형 '디지털 엑스레이'

천장형 신제품 'GC85A Fit' 선봬

삼성전자가 병원 환경에 맞춰 장비를 구성할 수 있는 천장형 디지털 엑스레이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는 천장형 디지털 엑스레이 'GC85A Fit'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플래그십 장비에 적용된 영상 처리 엔진과 AI 촬영 솔루션을 계승하면서 병원별 공간과 예산에 맞춰 장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GC85A Fit은 천장 레일과 촬영대, 디텍터 등을 선택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를 채택했다. 의료기관은 검사실 구조와 진료 환경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기능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의료진의 조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도 적용했다. '네오 다이내믹스(Neo Dynamics)'를 기반으로 경량 튜브 헤드 유닛(THU)과 장비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는 소프트웨어 디텐트(SW Detent) 기능을 탑재했다. 장비 손잡이의 커스텀 버튼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지정할 수 있다.

AI 기반 촬영 보조 기능도 강화했다. '비전 어시스트(Vision Assist)'는 검사실 밖에서 환자의 촬영 자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션 알람(Motion Alarm)'은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 의료진에게 알려준다. 척추와 하지 등 장축 촬영을 위한 설정을 자동화하는 '비전 스티칭(Vision Stitching)'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방사선 조사량을 자동 제어하는 'S-AEC(Smart Auto Exposure Control)' 기술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고 검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김동선, 사재 270억 들여 추가 공개매수

한화M&S 주가 급락에 대응
일주일 만에 338만주 추가 매입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사진) 사장이 1차 공개매수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270억원 규모의 사재를 털어 추가 공개매수에 나선다. 미국 중간선거 여파로 코스피와 한화M&S 주가가 연일 급락하자 단일 최대주주로서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경영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동선 사장은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화M&S 보통주 약 338만주를 주당 800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9일 공시했다. 매수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4% 수준으로, 김 사장 개인자금 약 270억원이 투입된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0일까지 22일간이며 매수 가격은 1차 때와 같다.

이번 공개매수는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다. 김 사장은 주가 하락과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주주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경영에 나서겠다며 지난달 한화M&S 보통주 2620만3000주를 주당 8000원에 공개매수했고 목표 물량의 87.7%인 2297만5541주를 확보했다.

1차 공개매수 발표 이후 한화M&S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발표 직전 6080원이던 주가는 공개매수가 끝난 직후인 3일 7900원까지 뛰며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wkh@

年 18% 성장하는 펨테크… “산업범위·기업현황 파악 우선”

〈여성+기술〉

2026 펨테크 컨퍼런스

중기부 주최, 여기종 주관 행사
펨테크 선정 기준 명확히 하고
기업별 필요·성과 맞춤 정책 제안

중기부, 지원 정책·예산 총괄하고
여경협, 기업발굴·사업화 등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펨테크 컨퍼런스’가 9일 오후 대전 유성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글로벌 펨테크(FemTech)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관련 산업 육성에 뒤쳐지기 않기위해선 당장 내년부터 펨테크 산업 범위와 기업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고 기업 성장 단계 진단과 유망기업 발굴 등을 통해 펨테크 산업의 지속 육성을 위한 초석 마련이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 발을 잘 내딛으면 기술개발→현장검증→시장진입→후속투자·사업확대→성과점검·개선 등 펨테크 지원 경로 구축이 순차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기종)가 주관해 9일 오후 대전 유성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6 펨테크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팸테크 기업, 산업·의료·투자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펨테크’란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월경, 난임, 임신, 출산, 갱년기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건강문제들을 해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은 이날 ‘펨테크산업의 성장전략과 생태계 조성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와 관련 질환 진단·관리 수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강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AI), 바이오, 웨어러블, 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우리도 펨테크 산업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제2차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펨테크 기업 발굴·육성 등을 처음 포함시키면서 첫 걸음을 내딛였다. 올해에는 관련 유망기업 발굴·사업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는 2025년에 91억2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펨테크 산업이 2034년엔 411억4000만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8.37%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펨테크 선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기업별 필요, 사업성과에 맞게 정책을 개선하기위해 펨테크 산업 범위와 기업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과정에서 신규 진입, R&D, 투자유치, 수출, 인력, 규제 애로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가 집중된 산업영역과 성장단계를 파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와 기관별 역할 정립도 중요하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펨테크 지원사업 정책·예산을 총괄하고 여경협은 유망기업 발굴, 사업화, 투자 연계 등에 집중한다. 여기종과 여성경제연구소는 창업보육, 기업정보, 실태조사 등을 담당한다. 또 의료·규제·투자·민간전문기관은 임상·인허가·R&D·투자·판로 등 분야별 전문성을 지원한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 겸 여기종 이사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삶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기술과 혁신으로 해결해나가는 팸테크 산업은 특히 의료, 바이오,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그 가능성이 실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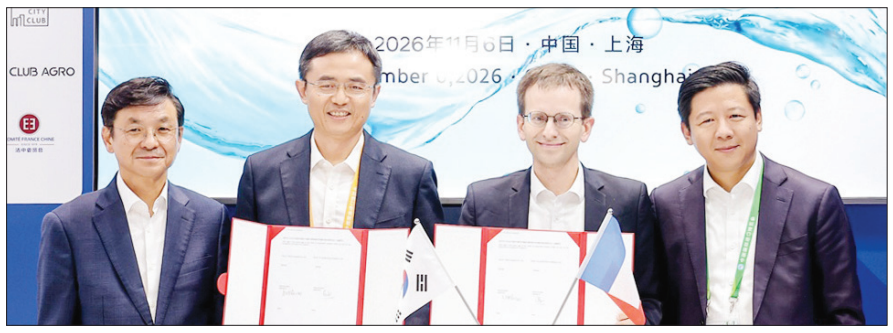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 中 수소사업 강화

佛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업무협약
수소연료전지·인프라 역량 결합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반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거점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에 나선다.

HTWO 광저우는 지난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에어리퀴드 차이나는 프랑스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의 중국 법인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최두하 전무, 에어리퀴드 차이나 루이 코엘료 CEO, 에어리퀴드 차이나 클레멘트 릭스 부총감,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최두하 전무, HTWO 광저우 손흥기 부장, 에어리퀴드 차이나 클레멘트 릭스 부총감, 에어리퀴드 차이나 천싱 부총경리가 지난 6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 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양사는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결합해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물류 거점과 간선 운송 등 실제 운송 환경에서 수소 공급과 수소 상용차 운영을 연계해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총소유비용(TCO)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을 높여 중국 시장에 적합한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 수소 상용차 시장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최두하 HTWO 광저우 총경리는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차량 운송·충전 인프라·수소 공급을 연계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중국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천싱 에어리퀴드 차이나 부총경리는 “각 사의 강점을 결합해 수소 물류와 차량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수소 모빌리티 솔루션을 모색해 중국 교통 분야의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S그룹, AIDC 전력망 안정에 힘 모은다

LS머트리얼즈-LS일렉트릭
E-STATCOM 개발·실증 ‘맞손’

LS그룹 소재 계열사 LS머트리얼즈와 전력기기 계열사 LS일렉트릭이 울트라캐패시터(UC)와 전력망 안정화 설비인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를 결합한 차세대 시스템 ‘E-STATCOM’을 공동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AIDC) 증설로 전력망 안정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직 실증 단계인 만큼, 그룹 내 역량을 묶어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LS머트리얼즈는 LS일렉트릭과 ‘E-STATCOM(Enhanced STATCOM)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와 AIDC 확산으로 커지는 전력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고 AIDC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면서 부하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STATCOM은 기존 STATCOM의 전압 안정화 기능에 UC의 고속 충·방전 기능을 더한 시스템이다. 전압과 주파수 변동은 물론 순간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양사는 LS일렉트릭의 전력변환·계통 제어 기술과 LS머트리얼즈의 대용량 UC 시스템을 결합해 E-STATCOM을 공동 개발한다. 실증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 뒤 시스템 국산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고도화 수요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STATCOM 시장이 2030년 약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왼쪽)와 박우범 LS일렉트릭 EA사업본부장이 9일 LS일렉트릭 글로벌 R&D 캠퍼스에서 열린 ‘E-STATCOM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그룹

LS그룹 관계자는 “LS머트리얼즈가 2024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MW급 랙형 UC 시스템 ‘LS UltraGrid’는 0.1초 이내에 MW급 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할 수 있어 E-STATCOM에 적용하면 재생에너지와 AIDC의 전력망 안정화에 활용할 수 있다”며 “LS일렉트릭은 국내에서 총 4.7Gvar 규모의 STATCOM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사업 경험을 쌓았고 E-STATCOM 최적화 설계와 운전제어 관련 특허 등 독자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미국 UL 검증을 받은 그리드포밍(Grid Forming) 제어 기술도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세미텍
김진우 신임 대표 내정

HBM용 TC·하이브리드 본더 공략



한화세미텍은9일 반도체 장비 사업을 이끌어 온 김진우 사업총괄(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30대 전략 전문가가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용 TC본더 시장 확대와 하이브리드본더 등 신시장 개척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한화비전과 한화세미텍을 함께 이끌어 온 김기철 대표는 한화비전의 사업 확장에 주력한다.

올해 37세인 김 신임 대표는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글로벌 회계법인 KPMG와 전략 컨설팅기업 AT커니 등을 거쳤다. 반도체·이차전지·산업기계 분야의 사업전략 수립과 추진을 맡아 온 전략 전문가로, 지난해 한화그룹에 입사해 한화세미텍에 합류했다.

한화세미텍에서는 전략수립과 사업총괄을 맡아 주력사업인 후공정 반도체 장비의 시장 확대를 주도했다. 사업총괄로서 산업용 장비 사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써 왔다.

김 신임 대표가 반도체 장비 시장 확대에 공들인 지난해 한화세미텍은 TC본더 ‘SFM5 Expert’로 9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3분기에는 반도체 장비 매출이 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2% 늘었다.

한화세미텍은 김 신임 대표를 필두로 HBM 제조 핵심 장비인 TC본더 시장을 넓히는 한편 하이브리드본더와 패널레벨 패키징(PLP) 등 신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반도체장비 부문 등 주력사업의 안정화와 시장 확대에 힘써 온 김 신임 대표가 앞으로도 한화세미텍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0년 연속 1위

소비자웰빙 환경만족지수 8년 연속 1위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에몬스

2026 KS-QEI

에몬스, 한국품질만족지수

15년 연속 1위

2026 '가정용가구' 부문 1위 수상



약 7만 5천여 명의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 결과, 2026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15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Emons







Emons 에몬스

에몬스X전도연 18년 동행
특별 SALE 이벤트

통신사 5G SA 전환 코앞… 망 중립성 규제에 수익 '안갯속'

올해 말까지 통신 3사 5G SA 의무
네트워크 슬라이싱 규제는 '숙제'
업계, 구체적인 적용 기준 마련 촉구


국내 통신 3사가 올해 말까지 5G 단독모드(SA)를 상용화 한다. /KT

국내 통신업체들이 올해 말까지 5G 단독모드(SA)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신규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올해 말까지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5G SA)를 상용화해야 한다. 현재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LTE 무선 접속망·코어망을 연동해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5G의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구현하기 위해 가상의 망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여기에 드는 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계획에 부담이 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을 흐르는 데이터 트래픽을 서비스 유형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제공하는 일종의 차별 금지 원칙이다.

문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망 중립성 지침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인 5G망을 가상으로 분리해 특정 서비스에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서비스별로 자원을 차등 배분해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업계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할 때 이같은 기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한다. 통신사의 사업화 여부가 규제 당국의 해석이나 승인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G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일반 이용자들의 통신 품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개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에 예외를 적용한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품질 제공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단서로 내걸었다.

현재 국내 5G 단독 모드에서 유력한 수익 모델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의 요금제가 거론된다. 실제로 유럽연합 통신 규제기구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서비스에 대해 세부 기준 마련을 매듭짓는 중이다.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기준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해외 통신사들은 이미 관련 요금제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올해 영국과 일본은 개인 고객이 사용 가능한 요금제 브랜드와 요금제를 선보였다. 미국, 호주도 지난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슬라이싱 요금제를 출시한 상태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5G 단독모드가 상용화되는 12월 초부터 통신설비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만큼 해당 시점부터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특화 서비스와 전용 요금제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정성권 LG유플러스 AX서비스개발그룹장, 정혜윤 CX센터장, 케빈 조 CSO, 이상엽 CTO, 이교구 서울대 교수, 정준선 카이스트 교수, 조대곤 연세대 교수(왼쪽부터)가 'K-보이스 AI 연합'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대학 3곳과 '한국형 AI 음성' 개발

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와 맞손
'K-보이스 AI 얼라이언스' 출범

LG유플러스가 국내 대학교와 손잡고 한국어에 특화된 차세대 음성 인공지능(AI) 'K-보이스 엔진' 개발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연세대학교와 'K-보이스 AI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성은 사람과 AI가 소통하는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음성 AI는 사람의 말을 문자로 변환해 답변을 생성한 뒤 다시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어 대화 환경에 최적화된 음성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K-보이스 AI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들은 한국어 음성 AI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K-보이스 엔진과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 음성·AI 분야 대학 연구진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보이스 기술을 연구한다.

서울대는 AI가 상황에 맞는 말투와 목소리로 대화하고, 사용자의 말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답하는 기술을 연구한다. 카이스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AI가 어떤 말에 반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대화가 길어져도 앞선 내용을 기억해 맥락을 이어가는 기술을 연구한다. 연세대는 음성 AI를 상담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고객이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상담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LG유플러스는 K-보이스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대학과 음성 AI 원천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한국어에 특화된 K-보이스 엔진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KT, 1111·1234 등 골드번호 응모 시작

타 통신사 고객도 참여 가능

KT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골드번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응모할 수 있는 골드번호는 AAAA(1111, 2222 등), ABCD(1234, 5678 등) 형식의 번호와, 특정 의미가 있는 번호(1004, 2580 등) 등 총 155개 유형이다. 고객 1인당 최대 3개 번호까지 응모할 수 있다.

선호번호를 원하는 고객은 전국 KT 매장과 KT닷컴,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KT 고객뿐 아니라 타 통신사와 알뜰폰(MVNO) 이용 고객도 참여 가능하다.

결과 발표일은 12월 11일이다. 당첨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KT닷컴과 마이케이티 앱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KT 매장 또는 KT닷컴에서 당첨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선호번호 추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네이버·카카오, AI가 광고 만들고 성과 분석

중소상공인 광고 제작·운영 부담 낮춰
네이버, 검색광고에 AI 문구 생성 기능
카카오, 광고주 AI 에이전트 12월 공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광고 제작과 운영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AI가 만든 이미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광고 제작과 운영의 진입장벽을 낮추며 중소상공인 광고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광고 문구 자동 생성에, 카카오는 광고 상품 추천부터 성과 분석까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에 집중한다. 광고 전문 인력이나 대행사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까지 고객층을 넓혀 광고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검색광고 '파워링크'에 AI 기반 '문구 생성' 기능을 시범 적용한다. 광고주가 등록한 광고 소재와 연결된 웹페이지 등을 AI가 분석해 이용자의 검색 의도에 적합한 문구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광고주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담은 문구를 직접 작성하고 검색 키워드에 맞춰 수정해야 했다. 특히 광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는 소재 제작과 관리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네이버는 AI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간소화하고 광고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능은 기존 광고 소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생성한 문구를 추가로 노출하는 형태다. 광고 제목이나 홍보 문구, 별도 영역 등에 표시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통합검색에 적용된다. 광고주는 11일부터 광고그룹 단위로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광고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테스트 기간에는 일부 검색어와 트래픽에 한정해 운영되며 병의원과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금융·보험 등 심의가 필요한 업종 관련 검색어는 제외된다.

이와 달리 카카오는 광고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광고주용 AI 에이전트 'AI 크루'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AI 크루는 광고주가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사업 목표와 예산 등을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광고 상품과 운영 전략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광고 설정부터 집행 이후 성과 분석까지 지원해 광고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도 손쉽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카카오는 광고주 지원뿐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사와 구매 의도를 파악하는 AI 광고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이용자의 행동과 선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통 메모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머신러닝 기반 광고 추천 기술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더라도 AI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새로운 광고 수요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양사의 전략은 AI를 통해 광고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네이버가 검색광고 소재의 자동 생성으로 기존 광고 상품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면, 카카오는 광고 상품 선택부터 성과 관리까지 AI가 지원하는 운영 체계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과기부, 'SKB·SK호라이즌' 사업 분할 심사

30일까지 의견 접수

정부가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DC)·해저케이블 사업 분할 인가 심사를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부터 30일까지 SK브로드밴드 분할 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는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기반 통신서비스 사업을 분리해 SK호라이즌(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의 분할 인가를 신청했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영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양식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분할 인가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거래 줄자 엇갈린 증권사 성적표… 운용·IB가 실적 갈랐다

9개 증권사 3분기 순익 1.3조
NH투자, 보수적 운용·IB로 선방
하나, 매매평가손실에 순익 급감
한국투자, 운용 부진에 실적 악화
iM, 기업금융 수익에 순익 증가
미래에셋, 스페이스X 평가손실 전망


여의도 증권가 전경. /메트로경제

주식 거래가 위축되면서 올해 3분기 주요 증권사의 합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비슷한 폭으로 감소한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자산 운용과 기업금융 성과에 따라 실적은 크게 엇갈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을 공개한 증권사 9곳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294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8.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9.7% 줄었다.

SK증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합산한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2분기 118조1000억원에서 3분기 75조3000억원으로 36.2% 감소했다. 거래가 뜸해지면서 위탁매매 수익을 별도로 공개한 증권사 7곳 모두 관련 수익이 줄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위탁매매 수수료는 전분기보다 각각 48.1%, 46.0% 줄었다. 수수료 감소폭은 NH투자증권이 더 컸지만 순이익 감소율은 NH투자증권이 21.6%, 하나증권이 94.0%였다.

NH투자증권은 금리 상승기에 보수적인 운용 기조를 유지했다. 운용투자손익과 관련 이자수지는 319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1.6% 줄었고, 회사채 주관과 기업공개(IPO) 실적도 이익을 뒷받침했다. 같은 기간 하나증권은 매매평가손실이 552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업금융 수익이 216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 늘었지만, 운용 부문 순영업수익은 1583억원으로 51.6% 감소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보유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해외 투자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도 낮아졌다. 발행어음 순이자마진 축소도 운용 수익에 부담을 줬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6일 한국금융지주 실적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 관련 손실이 추정을 상회"한 점을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요인으로 짚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기타 외환거래를 포함한 한국금융지주의 3분기 연결 기준 외환거래손실은 세전 1667억원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전환형 랩어카운트 판매 부진으로 금융상품 판매수수료도 1660억원에서 304억원으로 줄었다.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1549억원 순이익에서 400억원 순손실로 돌아서면서 한국투자증권의 연결 순이익은 281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2% 감소했다.

iM증권은 실적을 공개한 9곳 가운데 유일하게 전분기보다 순이익이 늘었다. 위탁매매 수익이 46.6% 줄었지만 이자 등 기타 수익과 기업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익이 늘면서 별도 기준 순영업수익이 8.7% 증가했다. 연결 순이익은 218억원으로 4.1% 늘었다.

특히나 증권사 실적 중에서는 오는 12일 실적을 발표하는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이 관건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연결 순이익 1조9052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당시 연결 세전이익 2조5287억원 가운데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이 1조6242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3분기에는 스페이스X 지분 평가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함께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관련 평가손실을 5800억원, BNK투자증권은 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지배주주 순손실 전망치는 2292억원이다. 실제 평가손실 규모는 결산에 적용하는 지분 평가가격과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증권의 3분기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3569억원으로 전분기 실적보다 26.9% 낮다.

3분기 실적을 먼저 공개한 증권사 9곳의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6조94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4% 늘었다. 상반기 증시 호황기에 쌓은 이익이 3분기 부진을 상쇄했다. 4분기에는 주식 거래대금이 얼마나 회복되는지와 금리·환율 변화가 보유 자산의 평가손익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연간 실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반토막 레버리지 ETF, 개미 '사고' 기관 '팔고'

레버리지 ETF 수익률 50% 넘게 급락
개인, 한 달간 2종에 2.4조 순매수
기관, 인버스 매수로 추가 하락 대비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증시 급락 속 개인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기관은 인버스 ETF를 사들이며 엇갈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개인투자자와 추가 하락에 대비한 기관투자가의 베팅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은 지수 상승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이고 있지만, 해당 상품들은 한 달 새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시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등을 기다리는 개인들의 투자 전략이 손실 만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10월 8일~11월 9일) 개인투자자는 국내 ETF 시장에서 7조5061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8조4864억원을 순매도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매수세를 집중했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KODEX 레버리지에 1조2287억원이 유입됐다.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에도 1조1949억원이 몰렸다. 두 상품에만 2조4000억원 넘게 투입한 셈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두 ETF의 수익률은 각각 -51.29%, -57.75%를 기록했다.

반면 기관은 개인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기관은 KODEX 레버리지를 1조4515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1조2338억원 순매도했다. 반대로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하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를 3242억원, KODEX 인버스를 1254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담았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하락장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늘린 것이다.

이 같은 수급 차이는 증시가 급락한 지난 6일에도 나타났다. 이틀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1%, 10%씩 급락하자 저가매수를 노린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KODEX 레버리지(1001억원)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657억원) 등 상승방향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하락 방향 상품인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며 대조를 이뤘다. 각각 360억원, 141억원씩 담았다. 단기 급락에도 개인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가능성에, 기관은 추가 하락 위험에 각각 무게를 둔 모습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대체로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낙폭을 만회할 기회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반등이 지연되거나 추가 조정이 이어질 경우 지수 상승에 베팅해 레버리지 ETF를 대거 사들인 개인투자자의 손실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급락을 과거 주요 위기 국면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조정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에 낙폭이 커진 만큼 추가 하락 압력은 남아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면서 저가 매수 매력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역대 1위 고점 대비 하락률을 기록했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3년 7개월에 걸쳐 75.4% 하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2개월에 걸쳐 54.5% 하락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생계비 최대 200만원

금감원·금융협회 등 피해자 지원 협약

보이스피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피해 직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전문 심리상담 6회를 마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굿네이버스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 '다시, 일상으로'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피해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내년 10월까지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중위소득 150% 이하다. 월 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 384만원, 2인 가구 629만원, 4인 가구 974만원 이하다. 생계비는 실제 피해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선정된 피해자는 전국 연계기관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최대 6회 받을 수 있다. 피해 이후 겪는 트라우마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과 연계해 심리상담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받는다. 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소득 증빙서류 등을 갖춰 굿네이버스 사무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앤트로픽, 몸값 낮춰 이달 상장 추진

美 추수감사절 전 IPO 마무리 목표
기업가치 1.25조~1.75조달러 전망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기술주 매도세 속에서도 이달 추수감사절 연휴 전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가치 전망은 한때 거론됐던 2조달러에 못 미치지만, 기업공개(IPO)를 통한 조달액은 최대 1000억달러(약 13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오는 26일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IPO를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를 1조2500억~1조7500억달러, 조달 규모를 800억~1000억달러로 예상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AI 관련주 약세를 반영해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책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FT에 따르면 한 대형 투자자는 상장 시 기업가치를 약 1조5000억달러로 내다봤고, 다른 기관투자자는 1조3000억달러 수준을 예상했다. 투자자들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기업가치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IPO를 추진할 의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바이탈 널리지는 AI 관련주 매도세가 이어지면 앤트로픽의 공모 여건이 나빠지고,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장을 추진하는 앤트로픽은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설비에도 투자하고 있다. FT는 8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이 지난 9월 말 미국 발전설비 공급업체 원파워솔루션스와 34억달러(약 5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계약에는 총 1.7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 발전기와 설치에 필요한 설계·시공 역량이 포함됐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상장사 20곳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코스피 7곳·코스닥 13곳 대상 선정

금감원은 지난 8월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코스피 상장사 7곳과 코스닥 상장사 13곳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5곳에서 5곳 늘었다. 올해는 그동안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권사도 2곳 참여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있는 금감원 직원이 각 회사를 방문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와 임직원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주요 규정을 설명한다.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보다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경우에도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교육에서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신약 개발이나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주식 소유 상황도 보고하지 않아 조치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 분야에 진출한다고 발표하고,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사례도 다룬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제재도 안내한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거래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허정윤 기자

독일 대형 유통망 뚫은 우리 술… aT, K-전통주 판로 확대

독일 '전통주 워크숍'서 12종 선봬
현지 매장에 9종 정식 입점 '성과'
농식품부와 '우리술 대축제'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전통주 업체의 독일 현지매장 입점을 성사시키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독일 소재 대기업의 유통망을 십분 활용했다. 국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번 주말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처럼 우리 술 알리기에 대내외적으로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aT는 지난달 23일 독일 니더작센주 윌첸의 대형유통매장 REWE(레베)에서 'K-발효 전통주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통주 12종을 선보였는데 9종이 현지매장에 정식으로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9종은 '백경15블랙', '솔송주', '담솔' 등이다.

이 행사는 유럽 내 발효식품과 새로운 풍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현지 소비자와 주류업계 관계자에게 알리고 신규 수출 판로의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독일 전역에 38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대형 식품유통기업 REWE와 협력했다.



독일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다. /aT

aT 관계자는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대형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오미로제연 ▲왕주 ▲송이주 ▲우렁이쌀청주 ▲이강주 등 한국 각 지역의 특색 및 양조 전통을 담은 전통주 12종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에게 한국 전통주의 역사와 발효문화, 전통 양조방식 등을 소개했다. 또 제품별 맛과 향, 음용 방법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우선 일반소비자 대상으로는, 전통주와 현지 식재료의 조화를 경험하는 페어링 체험을 비롯해 개인별 취향에 맞는 전통주 찾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지 식품·주류 수입업체와 외식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업 간 거래(B2B) 워크숍에서는 전통주 12종의 제품별 특징과 수입·유통 절차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현지 유통매장 신규 입점과 레스토랑 협업 등 구체적인 사업 기회도 논의했다. 유럽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의 취향과 수요를 반영한 체험형 홍보와 유통망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는 이달 13~15일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내 최대 전통주 행사인 '2026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우리술 대축제에선 전국 각지의 다양한 우리 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특히 K-푸드와의 연계 및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우리 술이 국내 소비시장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sool'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총 142개 양조장이 참가한다. 전시관에서는 올해 개최된 '202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영예의 수장작(18개 제품)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대통령상을 비롯해 각 부문별 대상을 받은 최고의 술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또 메인무대와 체험부스에서는 ▲우리술 역량강화 공개 컨설팅, ▲전통주 산업 소비 트렌드 및 학술연구 결과 발표 등 양조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엇진다. 이 밖에 우리술 경매쇼, 칵테일쇼, 한식 페어링쇼, 막걸리 빚기 체험, 나만의 술잔 만들기 등 '오감 만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 술 생산업체와 바이어 간 'K-sool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도 열린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경매 전 육질 미리 본다… AI 서비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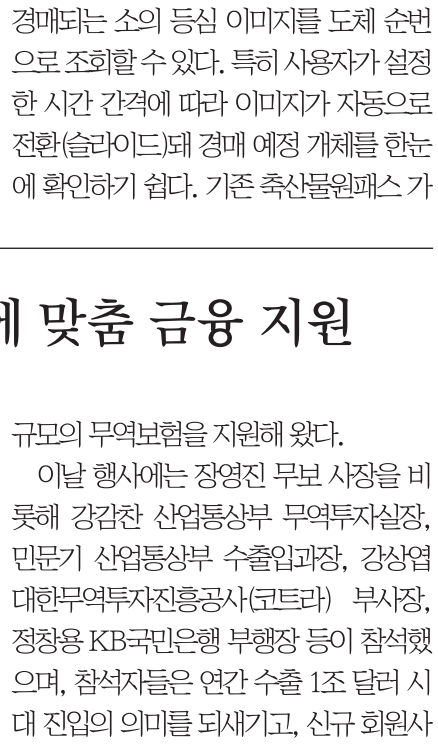
축평원, 이미지 제공 서비스 개시
중도매인, 6종 결함 정보 확인 가능

소가 경매에 부쳐지기 전 중도매인이 사진을 통해 육질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매 소 등심 이미지 제공 서비스'를 전국 공판장 및 도매시장에서 이달 초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 서비스는 경매 대상 소의 품질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반 품질평가 장비로 촬영한 등심 원본 사진이 제공된다. 이에 중도매인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로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경매 소 등심 이미지 제공 서비스' 메뉴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확인하면 된다.

축산물원패스는 축산물의 도축·유통·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거래정보 등을 한 곳에서 관리·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경매 소 등심이미지 제공 서비스. /축평원

이 서비스에 접속하면 공판장에서 당일 경매되는 소의 등심 이미지를 도체 순번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이미지가 자동으로 전환(슬라이드)돼 경매 예정 개체를 한눈에 확인하기 쉽다. 기존 축산물원패스 가입자라면 별도 절차 없이 PC(중도매인 사무실·도축장 비치)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9월 안동축산물공판장(경북 안동)과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경북 고령)에서 실시한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축평원은 약 두 달간 실제 경매 현장에서 서비스 활용성을 점검하고, 중도매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 이달 3일부터 전국 모든 공판장·도매시장 15곳에서 해당 서비스가 적용도기 시작했다. 특히 중도매인이 구매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 6종의 결함 정보(근출혈·수종·근염·외상·근육제거·기타)를 함께 제공한다.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별·등급 등 다양한 조건별 조회 기능도 도입했다. 축평원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서비스의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는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제품 순환성, 환경·비용·기술성 따져야"

KEI, 순환성 종합평가 제안

제품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수명과 재활용성 등 '제품의 순환성'을 개선할 때,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9일 KEI 포커스 '제품의 순환성,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EU MEErP를 통해 본 에코디자인 평가'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의 제품 환경 평가 방법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제품의 환경영향과 경제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U는 기존의 에너지효율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성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EU는 2024년 평가 방식을 개정해 재활용 원료 사용, 수리·업그레이드를 통한 제품 수명 연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신제품 생산에 따른 환경 부담은 줄어들지만, 고효율 신제품으로의 교체가 늦어질 수 있다. EU는 이러한 상충 관계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평가, 환경성적표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나, 각 제도가 별도 관리·운영되면서 제품 설계 개선에 따른 환경적 효과나 소비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KEI는 신규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와 평가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순환이용성평가를 활용해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수치로 평가하고 환경영향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결합하면 제품별로 어느 수준의 개선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무보, 수출 유망기업에 맞춤 금융 지원

신규 회원사 21곳 선정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의 올해 신규 회원사로 21개사를 선발하고, 지난 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출범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수출성장 플래닛'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무보의 대표적인 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제도다. 무보는 프로그램 도입 이래 지금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총 64개사를 선발해 누적 2조 8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무보 사장을 비롯해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민문기 산업통상부 수출입과장, 강상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부사장, 정창용 KB국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진입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규 회원사들에 대한 다양한 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규모에 따라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밀착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연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하 '이머징스타' ▲3000만 달러 이하 '라이징스타' ▲1억 달러 이하 '사이닝스타'로 세분화해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어촌뉴딜 3.0 대상지역 40곳 선정

정부가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40곳을 새로 선정하고 사업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시설 조성에 집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준공 이후 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7년 어촌뉴딜 3.0 신규 사업 대상지'로 전국 4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총 7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해수부는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을 최종 선정했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지역별 관광·산업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2026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 단체부문 종합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이영조 사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부발전

중부발전, 탄소중립 실천으로 대통령 표창

화력발전 중심 사업, 무·저탄소 전환

한국중부발전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관한 '2026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단체부문 종합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녹색경영 실천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이다.

중부발전은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사업 구조를 무탄소 및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에스앤마일즈가 선택받는 이유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
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27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01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 01(화)~12. 03(목)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215만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2
금속 용접 / 절단 기술 전시회
URBAN STEEL EXPO 2027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4. 20(화)~04. 23(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3
주조 / 열처리 / 야금 / 캐스팅
금속분야 최대 국제 전시회
GMTN 2027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6. 21(월)~06. 25(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Miles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02-3487-2800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일산신도시 재건축 속도… 주거시설 개선·미래 경쟁력 강화

고양시, 백송마을 특별정비구역 추진
기존 2732 → 3686 가구로 확대
후곡마을, 강촌·백마마을 심의 준비


일산신도시 부감.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도지구인 백송마을의 연내 첫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후곡·강촌마을 등 후속 사업지의 정비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곳은 백송마을이다.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백송마을은 관련 조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일산신도시 최초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백송마을은 재건축을 통해 기존 2732가구에서 3686가구로 확대되며, 최고 49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다른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에서도 정비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선도지구인 후곡마을과 후속지구인 강촌·백마마을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선도지구 강촌마을은 오는 12월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이후 재건축 대상지 48곳 가운데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곳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후속지구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 제안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보완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후속지구 3개 구역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정비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에도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기본계획 재검토에도 착수했다. 시는 지난 6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용역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용역비를 확보했으며, 2027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별개로 원도심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부터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상담소를 마련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사업 유형별 추진 요건과 절차를 안내했다.

시는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주민 수요를 반영해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향후 주교동과 성사동 등 다른 원도심 지역으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낡은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정비계획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포항시, 가을 릴레이 축제 계속된다

'전통시장 우수상품 박람회'부터
'행복 어울림 마당' '동행축제'까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촉진


포항지역 전통시장 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먹거리와 문화공연을 즐기고 있다.

포항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먹거리 장터와 문화행사 등 가을철 릴레이 축제를 이어간다.

10일부터 12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는 '포항시 전통시장 우수상품 박람회'가 열린다. 지역 대표 시장의 특산품과 먹거리를 선보이고 특산물 할인 판매, 김장용품 대전, 우수 상품 100원 경매, 공연 등을 진행한다.

지난 6일에는 유망골목상권인 젊음의 거리에서 '쌍사페스티벌'이 열렸으며, 구룡포에서는 14일 '행복어울림 마당'과 15일 '동행축제'가 이어진다.

앞서 10월 연일전통시장에서는 2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지역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한 '부추&바베큐 구이장터'가 운영됐다. 대해불빛시장에서도 매주 금·토요일 '만발야시장'을 열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포항시는 시장별 특색을 살린 행사와 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권역별 축제를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파주시, 문산권 보건·복지 복합시설 준공

문산보건센터, 내달 14일부터
해누림노인복지관, 1월부터 운영

파주시 문산권과 북부권 주민들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문산보건센터와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이 준공됐다. 문산보건센터는 오는 12월 14일,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은 2027년 1월 1일 각각 문을 열 예정이다.

파주시는 문산읍 개포래로 34 일원에 조성한 문산보건센터 및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문산보건센터의 협소한 시설을 대체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 기능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신축 시설은 부지면적 9299㎡, 연면적 4158㎡ 규모의 지상 3층 복합 공공건축물이다. 2024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준공했다.

건물 내부에는 진료실과 검진실, 건강상담실, 운동교실 등 보건시설과 경로식당, 강당, 강의실 등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섰다. 보건·복지 기능을 한 건물에 배치해 주민들이 여러 시설을 이동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는 지난 10월부터 개소·개관 준비와 사무실 임시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정식 운영에 앞서 시설별 이용 동선과 부대시설,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 5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손 시장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할 수 있는 요소와 부대시설 활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며 "시민들이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산보건센터는 오는 12월 14일 사무실 이전과 함께 개소하며,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파주시는 개소 전까지 시설 점검과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토마토 갈색 주름 바이러스' 방역 당부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수칙 안내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시설재배 농가에서 '토마토 갈색 주름 과실 바이러스(ToBRFV)'가 발생, 지난 5일 토마토 수경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바이러스는 토마토·파프리카·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감염되며 잎의 모자이크 얼룩과 주름, 과실의 불균일한 착색과 갈색 반점 등을 일으킨다. 감염이 심하면 과실이 썩고 생산량이 30~70%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방제 약제가 없으며 작업자의 손과 장갑, 전지가위는 물론 신발이나 작업복이 스치는 접촉으로도 퍼질 수 있다. 센터는 외부인의 온실 출입과 발생 의심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전용 작업복·작업화를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농가는 전지 가위와 상자, 유인선 등 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건전한 종자와 모종을 사용해야 한다. 확진되면 국가 표준 지침에 따라 감염주와 잔재물을 격리·폐기해야 한다.

/부산=김재남 기자 metrobusan99@

경북도, 새마을운동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해외 16개국 90개 시범마을 조성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도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새마을운동 유공 정부포상'에서 새마을운동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해외 시범마을 조성과 인재양성 등 새마을운동 세계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북도는 새마을재단과 함께 해외 16개국 90개 마을에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35개국 500여 명이 참석한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스리랑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가 변혁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베트남 호찌민대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대에서 해외 새마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영남대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지원해 49개국 글로벌리더 306명을 배출했다. '새마을 지도자 대학'을 통해 지역 지도자 2694명도 양성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완료

김해시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마치고 지난 7일 주민편익시설 야외광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영향권 지역 주민 축제인 '제3회 부곡주민 어울림축제'도 함께 열렸다.

시는 총사업비 1193억원을 들여 하루 처리 용량을 150톤에서 300톤으로 늘렸다. 기존 150톤 규모 소각로 1호기를 대보수하고 같은 용량의 2호기를 신설해 김해 생활폐기물 250톤과 창원 생활폐기물 5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밀양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경남 밀양시는 오는 14~15일, 21~22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서 '2026 밀양 선샤인 농산물대전·밀양얼음골사과대축제'를 연다. 지역 농업인의 판로를 넓히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총 4일간 직거래 장터와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주인 14~15일에는 밀양 선샤인 농산물대전과 밀양얼음골사과대축제가 함께 열린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얼음골사과와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과 상품권을 지급한다.

둘째 주인 21~22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산물 경매와 룰렛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주 농산물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10%를 밀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밀양(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경북문화관광공사

드라마·소설 속 명소 8곳 소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드라마와 영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경북의 명소 8곳을 소개하는 '경북여행 MVTI' 11월호 'Somewhere Between Pages and Scenes'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11월호는 스크린과 문학 작품 속 배경이 된 경북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자가 작품의 장면과 이야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관아 장면이 촬영된 고령 김면장군 유적지와 영화 '기적'의 모티브가 된 봉화 양원역이 대표적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국립창원대

'라 트라비아타' 무료 공연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사업단과 라 스텔라 오페라단이 오는 26~27일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총 3회 공연한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다.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오는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열린다. 사전 예약자에게 좌석을 우선 배치하며 예약은 카카오톡에서 '라 트라비아타_라 스텔라 오페라단' 채널을 검색해 진행하면 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연말 외식은 특별하게”… 프리미엄 다이닝 인기 높아진다

외식업계, 송년 특수 겨냥 고급화

크리스마스 예약 3년 새 1.4배 증가
캐치테이블, 고가 코스 수요 확대
매드포갈릭, 시즌 한정 신메뉴 선봬
신라·롯데호텔, 뷔페 23.5만원 책정



외식업계의 프리미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송년 모임을 특별한 미식 경험으로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뷔페로 몰리면서 예약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됐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연말을 앞두고 외식업계의 프리미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송년 모임을 특별한 미식 경험으로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뷔페로 몰리면서 예약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됐다.

외식업체들은 시즌 한정 메뉴와 고급 식재료를 앞세워 연말 수요 잡기에 나섰고, 특급호텔들은 성수기 특별요금을 적용하며 가격을 높이고 있다.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메뉴와 가격 모두 프리미엄화하는 모습이다.

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외식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외식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이 2023~2025년 크리스마스 방문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크리스마스 예약 건수는 매년 12월 일반 금·토요일 평균보다 2.7~2.8배 많았다. 전체 예약 건수도 2023년 대비 2025년 1.4배 증가했다.

올해 역시 예약 열기가 일찍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캐치테이블에서 발생한 크리스마스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4배 늘었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고가의 프리미엄 다이닝으로도 향하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기준 20만원 이상 하이엔드 코스 예약은 전년보다 2배 증가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2.4배 늘었다.

크리스마스 코스 예약 가운데 10만원 이상 가격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6.5%에 달했다. 예약 4건 중 1건 이상이 10만원 이상의 메뉴를 선택한 셈이다.

특히 미쉐린 스타 매장의 크리스마스 예약은 2023년 대비 2025년 1.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중 하루 이상 만석을 기록한 매장은 전체의 약 77%에 달했다. 호텔 뷔페 예약도 12월 일반 금·토요일 평균보다 3.3배 많았다.

외식업체들은 연말 특수를 겨냥한 시즌 메뉴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엠에프지코리아가 운영하는 매드포갈릭은 훈연한 할라피뇨와 치폴레 소스를 활용한 신메뉴 ‘더 스모키 에디션’ 3종을 출시했다. 파스타와 피자, 스테이크로 구성해 매콤하면서도 스모키한 풍미를 강조했다. 우대갈비와 폭립, 새우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그릴 플래터 ‘그랑 갈릭 본 스테이크 with Ribs & Smoky Shrimp’도 선보였다.

특급호텔들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뷔페 가격을 인상하고 고급 식재료와 특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의 ‘더 파크뷰’와 롯데호텔 서울의 ‘라세느’는 12월 하순 성인 저녁 가격을 각각 2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연말 최고가보다 1만원 오른 수준이다. 더 파크뷰는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하이시즌을 운영하며, 라세느는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특별요금을 적용한다.

조선호텔앤리조트도 연말 가격 인상에 나섰다. 조선팰리스의 ‘콘스탄스’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31일 성인 요금을 2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아리아’ 역시 같은 기간 저녁 가격을 23만원으로 올린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의 ‘더뷔페’는 12월 주중 성인 정상가를 기존보다 7000원 인상한 20만5000원으로 정했다.

가격 인상과 함께 메뉴 구성도 고급화하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은 더 파크뷰에 토마호크와 랍스터, 대구, 굴 등 고급 식재료를 추가하고 와인 무제한 제공 서비스를 마련했다. 뉴욕의 연말 분위기를 재현한 공간과 사진 촬영, 기념 액자 증정 행사도 운영한다.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말 분위기와 특별한 경험을 함께 판매하는 전략이다.

예약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다.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크리스마스 예약 4건 중 1건은 11월에 이뤄졌다. 예약이 마감된 매장의 빈자리를 기다리는 알림 신청 건수도 2023년 대비 2025년 1.84배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크리스마스 예약을 받는 매장도 2023년보다 1.7배 늘었다. 캐치테이블은 지난 6일부터 크리스마스 맛집 TOP100을 공개했으며, 해당 매장들의 예약은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별한 날에는 지갑을 여는 모습이다”라며 “외식업계는 가격 할인보다는 차별화된 메뉴와 서비스, 공간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맥심플랜트에 ‘오페라의 유령’ 입혔다

동서식품, 29일까지 협업 행사 운영
라떼·케이크 2종 등 한정 메뉴 출시



맥심플랜트 ‘오페라의 유령’ 테마. /동서식품

동서식품이 서울 한남동 브랜드 체험 공간 맥심플랜트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테마로 한 협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동서식품은 9일부터 29일까지 맥심플랜트에서 ‘맥심플랜트 X 오페라의 유령’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개막을 앞두고 기획됐다. 맥심플랜트 내부를 작품 속 오페라 하우스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꾸미고, 유령의 가면과 붉은 장미, 샹들리에 등을 활용해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분위기를 구현했다.

협업 한정 메뉴도 선보인다. ‘더 오페라 스트로베리 라떼’와 ‘더 오페라 베리 케이크’ 2종으로, 작품 속 붉은 장미를 연상시키는 색감을 적용했다. 가격은 각각 7400원, 9000원이며 두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트는 1만5000원이다.

한정 메뉴 구매 고객에게는 출연 배우 인터뷰를 담은 스페셜 신문과 협업 코스터를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매장에서 스페셜 신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뮤지컬 초대권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맥심플랜트는 맥심의 커피 문화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문을 연 공간이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방문객은 약 177만명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고객들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분위기를 공간과 메뉴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캔으로 즐기는 쏘맥 ‘테라&참이슬’

맥주·소주 실제 배합한 한정판 제품
알코올 도수 6도·485㎖ 캔으로 선봬



하이트진로가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캔 쏘맥 제품을 선보이며 주류 라인업 확대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맥주 브랜드 테라와 소주 브랜드 참이슬을 배합한 한정판 제품 ‘테라&참이슬’(사진)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별도의 혼합 과정 없이 캔 하나로 쏘맥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테라와 참이슬 원제품을 실제 배합해 알코올 도수 6.0도로 완성했으며, 맥주의 청량감과 소주의 깔끔한 맛을 조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485㎖ 캔 1종으로 출시된다. 오는 17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정채널에서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패키지는 테라와 참이슬의 브랜드 디자인 요소를 결합했다. 캔 전면에 참이슬병과 이슬방울을 배치하고, 이슬방울에 맥주의 황금빛 색감을 적용해 두 브랜드의 조합을 표현했다.

하이트진로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쏘맥 배합 비율을 검토하고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캔 제품으로 즐기기에 적합한 도수와 맛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제품을 시작으로 테라와 참이슬의 조합을 활용한 쏘맥 브랜드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 ‘삼양맨’ 개설 3개월 만에 218만뷰

직원 매운맛 도전 콘텐츠 인기

삼양라운드스퀘어가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직원이 미국 각지의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채널 개설 약 3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200만회를 넘어섰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자체 유튜브 채널 ‘samyangman(삼양맨)’의 누적 조회수가 지난 8일 기준 218만회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설한 삼양맨은 글로벌 브랜드 콘텐츠 채널 ‘BURNT(번트)’의 오리지널 시리즈 ‘Fire or Fired(FOF)’를 선보이는 채널이다.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직원 토니가 뉴욕과 텍사스,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각지를 찾아 현지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았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대신 일반 직원을 출연시켜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7편 가운데 삼양식품 미국법인 삼양아메리카를 방문한 영상이 77만회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내슈빌과 뉴멕시코 등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해외 시청자 유입도 두드러졌다. 전체 시청 비중에서 미국이 약 45%를 차지했으며, 캐나다와 영국, 호주 등을 포함한 해외 시청 비중은 약 99%에 달했다.

/신원선 기자

풀무원, ‘반듯한식’ 국탕류 17종으로 확대

보양식·일상식 신제품 9종 선봬

풀무원이 프리미엄 한식 간편식 브랜드 ‘반듯한식’의 국탕류 제품군을 확대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보양식부터 일상식까지 메뉴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풀무원식품은 반듯한식 국탕류 신제품 9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저염 사골곰탕, 영양 갈비탕, 정통 도가니탕, 사골양지 설렁탕, 얼큰 소고기무국, 황태가득 해장국, 맑은 순두부찌개, 두부 김치찌개, 시골집 된장찌개 등이다. 이에 따라 반듯한식 국탕류 제품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제조 과정에는 다단식 살균 공법을 적용했다. 원재료의 열 손상을 최소화해 건더기의 식감과 국물 풍미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제품 가운데 7종은 ‘안심나트륨’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국·탕류 평균 나트륨 함량보다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 식품 유형 경쟁사 제품보다 25% 이상 줄인 제품이다. 두부 김치찌개와 시골집 된장찌개는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1년 말 국탕류 시장에 진출한 풀무원은 제품군 확대와 함께 유통망 다변화에도 나선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은 물론 지역 슈퍼와 일반 할인점 등 생활밀착형 유통망을 공략해 판매 접점을 넓힐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K-뷰티, 일시적 유행 넘어 美 시장 정착 박차

CJ올리브영, 美 매장 확대

내년 상반기까지 총 7개 매장 목표
LA·샌디에이고 프리미엄 상권 진입

한국식 스킨케어 학습 공간 주력
맞춤형 피부 진단 '스킨스캔' 통해
첨단 뷰티테크 영역서 입지 다져



CJ올리브영 미국 1호 '패서디나점'.

국내 헬스앤뷰티(H&B) 시장의 절대강자인 CJ올리브영이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영토 확장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기존 LA 거점을 넘어 캘리포니아 남부 최대 상권인 샌디에이고까지 전진 배치하며, 한국 중소·인디 뷰티 브랜드의 세계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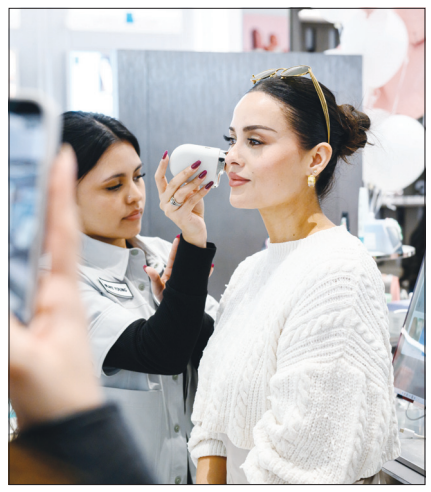
CJ올리브영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5개 매장을 추가 출점해 총 7개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신규 매장은 미국 서부의 유행과 소비를 주도하는 LA 광역권과 캘리포니아 남부 핵심 도시인 샌디에이고의 대표 프리미엄 상권에 들어선다.

LA 광역권에서는 어바인의 라이프스타일 쇼핑센터 '스펙트럼 센터'를 비롯해 사우스베이 '텔 아모 패션 센터', LA 도심 파머스마켓 인근 복합쇼핑몰 '블룸 온 서드', 오렌지카운티 중심부의 '브레아 몰'에 개점을 추진한다. 샌디에이고 대표 고급 쇼핑몰 '패션 밸리'에도 입점해 현지 오프라인 접점을 다각화한다.

이번 출점 지역에는 미국 최대 리테일 부동산 기업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운영하는 주요 쇼핑몰이 대거 포함됐다. 올리브영은 현지 유동인구가 몰리는 핵심 거점을 늘려 한국 중소 K뷰티 브랜드의 대중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내외에서 인디 브랜드의 시장 안착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올리브영은 현지 소비자가 한국식 스킨케어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주력한다. 선스틱, 선쿠션, 토너패드 등 생소한 제형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피부 진단 서비스인 '스킨스캔'을 제공해 신개념 K뷰티 입지를 첨단 뷰티테크 영역에서도 다진다. 실제로 스킨스캔 서비스는 올해 올리브영이 미국에서 선보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올리브영 미국 패서디나점에 방문한 해외 고객이 맞춤형 피부 진단 서비스인 '스킨스캔'을 받고 있다. /CJ올리브영

개점 약 5개월 만에 누적 이용 고객 2만 7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이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시장을 넘어 북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뷰티 플랫폼'으로 체질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연매출 5조 8335억원, 영업이익 744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가운데, 올해 역시 성장세는 가파르다.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

올리브영의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3조33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상반기 실적으로 3조원 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올해 연 매출 6조원 돌파 가능성도 높였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급증이 주효했으며 온라인 매출 역시 신규 포인트 제도 도입과 오늘드림 주문 증가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 매장을 2개점까지 가동하며 북미 타깃 B2B 사업 및 오프라인 테스트를 마친 올리브영은, 이번 5개점 추가 출점을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는 분석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의 미국 오프라인 매장은 K뷰티의 우수성을 현지에 전파하는 전략적 통로이자 신진 브랜드들의 주류 시장 안착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K뷰티가 글로벌 무대에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한 만큼, 이를 일시적 유행을 넘어선 뷰티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브랜드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KT&G
플렉스·페임 4종 카자흐 시장 진출

KT&G가 카자흐스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차세대 제품(NGP) 사업 확대에 나섰다.

KT&G는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 궐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FLEX(플렉스)'와 전용 스틱 'FAIIM(페임)' 4종(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FLEX와 FAIIM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릴 에이블'과 '에임'을 현지 시장에 맞춰 재브랜딩한 제품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 한정해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 유통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알마티 대형 쇼핑몰 포럼몰(Forum Mall)에는 FLEX 플래그십스토어도 운영한다. 매장에서는 브랜드 홍보와 제품 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출시는 KT&G가 NGP 해외사업에서 일부 제품의 독자 상업화 기반을 확보한 이후 추진하는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KT&G는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생산공장 구축과 유통망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해 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성바이오에피스 "SB27,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 확인"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美면역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서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결과 발표
중화항체 단 한 건도 발생 안 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4~8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미국면역항암학회(SITC) 2026년 연례 학술대회에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SB27'의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SB2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46조원(317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1위


삼성바이오에피스 발표 현장 사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4년부터 글로벌 14개국에서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555명을 대상으로 표준 화학요법과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SB27과 오리지널 의약품을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임상시험 분석 결과, SB27의 1차 평가변수인 '24주 시점의 객관적 반응률(ORR)'이 사전 정의한 규제기관의 동등성 마진을 충족하며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확인했다. 또한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기간을 나타내는 무진행생존기간(PFS), 약물에 대한 반응 상태가 유지되는 반응지속기간(DOR), 환자의 전체생존기간(OS) 등 주요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체 치료 후 이상반응과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비율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했으며, 특히 체내에서 약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NAb)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상의학본부장 신동훈 부사장은 "이번 SITC 발표를 통해 글로벌 대규모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변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며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SB27의 임상의학적 동등성과 일관된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고품질 항암 바이오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혜택을 넓혀갈 수 있도록 개발 역량을 지속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설록
"카페인 걱정 없이 밤에도 차 즐겨요"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차(茶) 브랜드 오설록이 독자 기술력으로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취향 맞춤형 티타임을 완성했다.

오설록은 2년간의 연구 끝에 카페인을 97% 이상 덜어낸 무카페인·디카페인 신제품 4종(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무카페인 음료는 과일의 풍미를 갖춘 루이보스 2종이다. '삼다 꿀배 루이보스'는 달콤한 배와 꿀의 부드러운 잔향을, '제주 영귤 루이보스'는 제주 영귤 특유의 산뜻하고 상큼한 향을 담았다.

디카페인으로 선보이는 홍차도 총 2종이다. '디카페인 제주 동백꽃 티'는 홍차를 바탕으로 동백꽃과 열대과일이 조화를 이룬다. '디카페인 피치 블랙티'는 홍자와 함께 잘 익은 복숭아가 깊이를 더한다.

오설록 관계자는 "자체 기술력으로 카페인을 줄이면서도 홍차 본연의 진한 바디감은 그대로 지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브랜드 대표 블렌디드 티를 이번에는 카페인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일상과 취향에 스며드는 다채로운 차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약물전달기술 강화

대웅제약이 계열사들과 손잡고 정맥주사(IV)의 피하주사(SC) 전환과 붙이는 패치형 의약품 상용화를 이끌 독자 약물전달기술을 강화한다.

대웅제약은 대웅테라퓨틱스가 개발한 고농도 피하주사 제형 플랫폼 '써미크라'와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클로팜'을 활용해 신규 의약품을 발굴하고 제품화를 추진하는 공동개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써미크라는 대웅제약·대웅테라퓨틱스·대웅바이오 3사가, 클로팜은 대웅제약과 대웅테라퓨틱스가 함께 개발한다.

이번 협력은 특정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약품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스테키마', 유럽서 처방범위 확대

소아 크론병·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추가에 대한 변경허가 '승인 권고'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소아 크론병 및 소아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추가에 대한 변경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 권고로 셀트리온은 유럽 내 스테키마의 처방 대상을 2세 이상 소아 환자까지 넓히며 처방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유럽에서 성인 및 소아 판상 건선(PsO), 성인 건선성 관절염(PsA), 성인 크론병(CD), 40kg 이상 소아 크론병 및 성인 궤양성 대장염(UC) 등의 적응증에 대해 스테키마의 허가를 획득하고, 현재 유럽 각지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2세 이상 소아 장질환 적응증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유럽 내 우스테키누맙 시장 지배력을 한층 공고히 할 전망이다.

스테키마는 지난해부터 유럽을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유럽에서 자동주사제(AI) 제형을 공급한 이후 투여 편의성을 앞세워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우스테키누맙 시장에서도 출시 약 1년 만인 올해 2월 점유율 10.2%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 7월 16.2%로 5개월 만에 6%p를 끌어올렸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는 지난해 약 60억7800만 달러(약 8조5092억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스테키누맙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186억6538만 달러(약 26조1315억원)로 추산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적응증 추가 승인 권고를 바탕으로 향후 유럽 내 소아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치료 범위를 보다 넓히는 한편 기존 주력 제품군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 후속 라인업도 지속 확대해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일 시 2026년 11월 18일(수) 14:00~17: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이경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김지섭
-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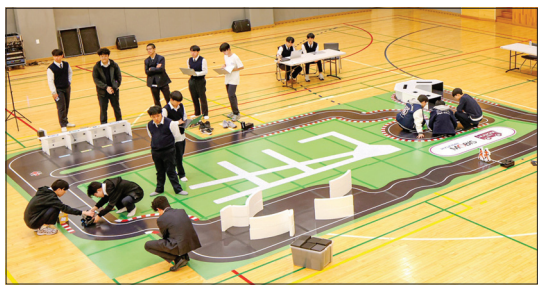
현창호
-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우용** 한국SW · 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강연	14:50~15:20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팀장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현대모비스, 청소년 미래 공학 인재 육성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청소년 공학 인재 육성에 나섰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을 교육과정에 접목하고 학생들이 직접 연구와 실습을 통해 공학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하나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현대모비스 청소년 공학 리더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중진공, 30년 무분규 노사문화로 우수기업 인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0년간 무분규 등의 노력으로 노사관계 분야에서 대외 인증을 받았다. 9일 중진공에 따르면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왼쪽부터)한국경영인증원 이영찬 경영평가본부장, 중진공 박노영 노동조합 지부장, 이병철 부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현대차그룹, 유소년 스포츠 지원에 멘토링 추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국 초중고 유소년 스포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차량과 훈련비 지원에 더해 일반 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멘토링을 도입해 학교 체육 활성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기프트카 플레이온 시즌2' 캠페인 영상에 출연한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광주여대 교수(가운데) 및 학생들이 지원 차량 앞에서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렉서스코리아, 스킬 콘테스트로 서비스 전문성 강화

렉서스코리아가 전기차 고객 응대부터 정비까지 현장 직원들의 서비스 역량을 점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개선에 나섰다. 렉서스코리아는 지난 7일 경기 용인 토요타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2026 렉서스 스킬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중앙의 챔피언 7명은 왼쪽부터 부품, 고객 지원, 판금, 세일즈 컨설턴트, 일반 정비, 도장, 서비스 어드바이저 부문 순이다. /렉서스코리아

공영홈쇼핑

'AI 윤리 준수기관' 인증 획득

공영홈쇼핑이 '인공지능(AI) 윤리 준수기관' 확인 마크를 획득했다.

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해당 마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과 실천을 내재화한 기관에 발급한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공영홈쇼핑은 대 원칙인 공익·상생, 공정·포용, 진실·투명, 사람·책임, 안전·신뢰, 정보·권리와 18개의 행동기준을 수립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미 경제협력 이끈 故 조석래… '한미우호상' 수상

〈효성그룹 명예회장〉

한미 FTA·비자면제 기여 공로
양국 경제계 공동 연구 주도·협력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제24회 한미우호상을 수상했다.

효성은 지난 6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미우호상 시상식 및 한미우호의 밤'에서 조 명예회장이 한미협회로부터 한미우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고인을 대신해 상을 받았다.

조 명예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미재계회의, 한일경제협회 등 국내외 경제교류단체를 이끌며 민간 경제 외교 활동을 펼쳤다. 2002년에는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국제회장을 역임했다.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효성그룹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앞장섰다. 지난 2000년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아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양국 경제계의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갔다. 2007년 한미 FTA 타결 이후에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의회 의원들에게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도 힘을 보탰다. 조 명예회장은 한미재계회의 내 비자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은 2008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이 됐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조 명예회장은 1987년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해 한미 FTA 10주년 공로상과 영산외교인상 등을 수상했다.

이날 상을 대리 수상한 조현준 회장은 "제 외조부 송인상 회장님께서 제2대 한미협회장을 오래 역임하시고 2004년에 같은 상을 받으셨는데, 오늘 선친께서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가족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라셨던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미동맹'이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롭다"며 "선친의 뜻을 가슴에 새겨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까지 더욱 굳건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B국민은행, 자립생활관 새단장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규모 확대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자립지원센터에서 'KB드림홈' 새단장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KB드림홈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자립생활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업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5개 지역 자립생활관의 환경 개선을 위해 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원 규모를 1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총 10개 자립생활관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세탁실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청년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휴식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공용 공간인 '스타*D 룸'을 마련해 청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교육부, 일본서 AI 교육 등 협력 모색

'교육행정교류 프로그램' 운영

한국과 일본 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 교육과 유학생 지원 등 양국의 핵심 교육 현안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6년 한·일 교육행정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 대표단은 이난영 국제교육기획관 등 정책 담당자 10명으로 구성했다. 대표단은 일본 문부과학성을 방문해 AI 교육을 비롯한 양국의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지 교육기관도 찾는다. 대표단은 도쿄대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방송대학 등을 찾아 고등교육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평생교육 정책 등을 살펴본다. 하치야마 중학교와 다케하야 초등학교 수업도 참관해 일본 교육계가 AI·디지털 교육을 활용하는 방법도 파악할 예정이다.

1984년부터 이어온 한·일 교육행정교류 프로그램은 양국이 매년 상대국을 방문해 교육정책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문부과학성 대표단이 한국을 찾아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을 살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에 이영국 교수

내년부터 1년 임기



연세대학교 이영국 신소재공학부 교수(사진)가 대한금속·재료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세대는 이 교수가 지난달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금속·재료학회 정기총회에서 제57대 회장으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1년이다.

1946년 출범한 대한금속·재료학회는 산업계와 대학, 연구 기관의 재료 분야 연구자 2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학술단체다. 매년 학술대회를 열어 2500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공학 분야 학회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등재 학술지 3종을 발간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왼쪽 다섯번째)과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 마요와 조엘 사무총장(왼쪽 네번째), 퀸 오그부지라디포 이사회 의장(왼쪽 세번째)과 제19회 및 제20회 고촌상 수상자들이 지난 지난 5일 오후 8시(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0회 고촌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결핵 퇴치 공로 조명

제19·20회 고촌상 시상식
3개 단체 공동 수상자 선정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 5일 오후 8시(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20회 고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초 연기됐던 제19회 고촌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고촌상은 '타 보건서비스와의 통합을 통한 결핵 조기진단 및 치료 접근성과 성과 개선'을 주제로, 마셜제도 결핵관리프로그램(Marshall Islands TB Control Program)과 인도의 REACH(지역사회 보건 교육 및 지지 그룹), 케냐의 보건솔루션센터(Center for Health solution)' 등 3개 단체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마셜제도 결핵관리프로그램은 결핵과 당뇨병, 한센병 검진을 통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도 마주로 지역 주민 약 2만명을 대상으로 통합 검진을 실시해 활동성 결핵환자 314명을 발견했으며, 95.9%의 높은 치료성공률을 달성했다.

인도의 REACH는 민간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해 결핵 조기진단과 환자 지원체계를 확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 사

◆**한국전기연구원** △시험부원장 이동준 △전략정책본부장 김슬기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장 전진홍 △기획조정본부장 문소민 △경영지원본부장 고성주

◆**한국앤컴퍼니그룹** ◇한국앤컴퍼니 △부사장 김성진 △상무 김지예 △상무 우재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사장 안수정 △부사장 박현민 △부사장 김헌준 △부사장 박정수 △전무 김동욱 △전무 이병용 △전무 전일환 △상무 민경신 △상무 박종진 △상무 이원혁 △상무 이준길 △상무 박승원 △상무보 김응수 △상무보 김응준 △상무보 김현근 △상무보 류상조 △상무보 민성원 △상무보 박범준 △상무보 이민 △상무보 이진혁 △상무보 장우혁 △상무보 정문철 △상무보 정재현 △상무보 정철 △상무보 정효준 △상무보 최우영 △상무보 툰자이 탄수(Tuncay TANSU)

◇한온시스템 △전무 천성익 △전무 강성욱 △전무 김경수 △전무 팀 유델(Tim UDELL) △전무 르네 베예트(Rene VEILLETTE) △상무 은광표 △상무 이대완 △상무 사미르 데사이(Samir DESAI) △상무 윌리엄 아바테(William ABATE) △상무보 강현택 △상무보 권준범 △상무보 김광주 △상무보 김우찬 △상무보 민은기 △상무보 안승재 △상무보 정학재 △상무보 최성선 △상무보 황동우 △상무보 마리오 렌츠(Mario LENZ)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및 교육원장 임용 △제주캠퍼스 지역대학장 이충재 △순천캠퍼스 지역대학장 서동욱 △동부산캠퍼스 지역대학장 김광식 △진주캠퍼스 지역대학장 김현철 △분당융합기술교육원장 최용준 △광명융합기술교육원장 한금현 ◇법인 보직자 임명 △전략기획국장 최민환 △감사실장 최익정

◆**파이낸셜리뷰** △금융부장 이종은

부 음

▲최양규씨 별세, 최철인·훈진(새마을금고중앙회 홍보부 언론팀장)씨 부친상, 최희석(매일경제 정치부 기자)씨 장인상, 최지혁씨 외조부상 = 8일,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 8호, 발인 11일 오전 5시 2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화장)·용인천주교추모공원. 02-3010-2000

질문은 디폴트다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생활비와 물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뜻밖에 크게 부각된 쟁점이 있다. 바로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의 필수적인 산업 거점인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된 것이다.

지역 주민투표에 부쳐진 데이터센터 관련 안건 중 데이터센터 개발을 제한하거나 반대하는 쪽이 대부분 승리했다. 물론 이 모두가 신규 건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

주지사 선거는 더욱 주목받는 지점이다. 텍사스와 오하이오, 조지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꺾고 주지사에 당선됐다. 이들 선거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소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기술경쟁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왔던 것은 치솟는 전기요금과 물 부족,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우려였다.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력망의 안정성 문제로 2021년부터 데이터센터 전력망 연결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2022년 전력 수급 제약을 이유로 광역 더블린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연결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는 2022년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초대형 제이볼더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우리를 돌아본다. 올해 5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 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불과 넉 달 뒤다.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제도, 법정 처리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국가가 전력·용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비수도권에 짓는 AI 데이터센터는 일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정부는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발표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총 18.4GW 규모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송전망과 전력 저장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고, 지역의 토지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산업 인프라다. 따라서 투자 규모와 건설 속도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전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지역에 생기는 일자리는 몇 개인지, 그 편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구체적인 방식과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국민과 지역주민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먼저 겪은 나라들이 던진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기와 땅과 물은 공공성이 큰 자원이다. 일자리, 경제적 편익을 포함한 이 모두가 지속가능해야 한다.

질문은 옵션이 아니라 디폴트다.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좌표다. 질문을 생략한 채 속도만 앞세운다면 그 대가는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가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국민과 지역주민은 정부에게 질문을 던지며 '착하고 옳은 성장'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증권사 해킹 사과문에 없는 숫자



기자 수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증권사에서 해킹 사고가 나면 먼저 확인하는 게 피해 규모다. 몇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이름과 전화번호가 빠져나갔는지, 계좌번호도 포함됐는지 따진다. 증권사가 평소 이 정보를 지키는 데 얼마를 쓰고 인력을 얼마나 배치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올해 정보보호 공시를 보면, 국내 30여개 증권사 가운데 보안 투자액과 전담 인력 규모를 공개한 곳은 10곳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상 전담 인력이 50명을 넘는 곳은 한 곳, 10명 미만인 곳은 두 곳이었다.

전담 인력 규모만으로 회사의 보안 수준을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사고를 보면 증권사에서 관리해야 할 곳이 얼마나 다양한지는 알 수 있다. 대신증권에선 외부 업체와 연결된 비대면 계좌개설 서버가 공격받았다. 한양증권에선 사내 그룹웨어가, 미래에셋증권에선 그룹웨어와 모바일웹 로그인 서비스가 공격받았다. 외주업체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누가 고치고, 누가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지도 증권사가 챙겨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회사 약 580곳을 전수점검하고, 대형사부터 취약점 평가를 연 두 차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외부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면 취약점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부 연결을 새로 허용할 때는 그 경로를 통해 고객 정보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점검에서 발견한 취약점도 수정 기한을 정하고 실제로 조치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가 새벽에 이상 징후를 찾아내면 경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접속을 차단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체 인력으로 야간 대응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형사에는 금융보안원의 공동 관제와 기술 지원을 넓힐 필요가 있다. 증권사도 경보가 들어오면 누가 판단하고 누가 차단할지 미리 정해둬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총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심사 중이다.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을 따질 때는 사고 전에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도 봐야 한다. 이미 발견한 취약점을 제때 고쳤는지, 외주 서버까지 관리했는지, 이상 징후가 포착됐을 때 곧바로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

증권사는 보안 투자액과 전담 인력 규모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새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보안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배치했고, 점검에서 발견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도 경영진의 책임이다. 고객이 그 답을 듣기 위해 다음 해킹 사고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

/zelkova@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1				9
		2	8		3	4		
	1						6	
	6		5		9		2	
5				3				7
	9		4		7		5	
	3						8	
		7	2		6	9		
4				9				2

			4		2	5	8	
			5			8		7
	7							
			7	2	3	9		5
			8				2	
4				8	5	1	6	
								6
2				4			3	
			3	5	6		7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1	8	9	3	6	5	4
3	4	9	6	5	2	7	8	1
6	8	5	4	7	1	9	3	2
1	5	6	7	2	4	3	9	8
7	9	8	1	3	6	4	2	5
4	2	3	9	8	5	1	6	7
8	6	7	2	4	9	5	1	3
5	3	2	1	7	8	9	4	6
9	1	4	3	6	7	2	5	8

1	4	7	2	6	5	8	3	9
8	9	3	7	1	4	5	6	2
2	6	5	8	3	9	7	4	1
3	1	6	5	8	2	4	9	7
7	5	4	6	9	1	3	2	8
9	2	8	4	7	3	6	1	5
4	8	1	9	5	7	2	8	6
6	7	2	1	4	8	9	5	3
5	3	9	3	2	6	1	7	4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0일 (음 10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60년생** 맞지 않는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2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84년생**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습니다.

소 **49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으세요. **61년생** 중심을 잃지 마세요. **73년생** 집안에 혼사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5년생** 끝내 이룰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호랑이 **50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62년생** 후배들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74년생** 친한 친구와의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86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토끼 **51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입니다. **63년생**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세요. **75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7년생** 지나친 당신의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용 **52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세요. **64년생** 실패 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76년생** 서두르지 마세요. **88년생**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연락이 오니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뱀 **53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65년생** 좋은 소식을 접 할 수가 보입니다. **77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깁니다. **89년생** 가족 나들이에 가정이 화락합니다.

말 **54년생**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하려 합니다. **66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78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0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양 **55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67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79년생** 크게 일어나게 되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91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심이 좋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의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닭 **57년생** 밖으로 나아가세요. **69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길합니다. **93년생** 오늘 하루 주변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 **58년생** 모든 것이 길한 좋은 날입니다. **70년생** 직장내에서 승진운이 있습니다. **82년생** 대중교통 이용에 주의하세요. **94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수가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71년생** 오늘은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입니다. **83년생** 모든지 양보하면 길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김상회의 四季

금선탈각

폭염이 심한 한여름에 나무 기둥을 보면 비어있는 매미 껍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매미라는 실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가 나무 기둥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병법 삼십육계 중 하나인 금선탈각金蟬脫殼은 바로 이런 자연 현상에서 유래했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기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체만 빠져나가는 전략을 의미한다. 금선탈각은 잇달아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인생 전략이 아닐까 싶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학벌 직장 직위 등이 그런 것들이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발판이 되어주고 도약대가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전혀 필요 없는 학벌과 전 직장과 옛날 직위를 내세우려고 한다.

금선탈각은 이러한 관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쓸모없어진 낡은 껍질을 붙들고 있느라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 금선탈각은 은퇴 이후에 새로운 출발의 방법으로 삼기에 좋은 전략이다. 직장생활을 끝냈으면서 과거의 직함과 직위만 쳐다본다고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허탈함만 심해질 뿐이다. 그런 때는 전직의 껍질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옛날의 누구라는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사람이라는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금선탈각의 지혜는 더욱 중요해진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일, 기존과 전혀 다른 직업을 구하는 일,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모두 예전의 껍질을 벗는 과정이다. 남겨놓은 허물은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인간관계에 쓸데없는 껍질을 벗어야 할 때가 왔다면 벗어던져야 한다. 그 껍질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1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재건축 발목 잡는 재초환… 억대 부담금에 제도 개선 요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초과이익 부담금 걷는 재초환에 조합원 부담 가중,사업추진 차질
서울 재건축 53곳 부담금 4.4조
달라진 재건축 여건 반영해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이 조합원당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난 가운데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져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담금 부과 시한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조합원들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을 억제하던 시기에 도입한 제도가 노후 아파트 정비 수요가 커진 지금은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 단지 전체 예정액은 2조44억원이다.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에서는 부담금 부과 절차가 쟁점이다. 서울 서초구는 옛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9일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 발송 여부는 이날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사전통지 이후에는 50일간 조합의 의견을 받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재초환은 재건축에 따른 주택가치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이 공사비 등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내는 추가분담금과 별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추가분담금과 함께 초과이익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까지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한시적 면제와 제도 완화·폐지 논의를 거치면서 부과가 지연돼 왔다. 2018년 재시행 이후에도 주요 단지의 최종 부담금 부과가 미뤄졌고, 2021년 준공한 반포현대 역시 최종 납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해 부과 시한을 2029년까지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폐지를 건의하면서도 부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시한을 넘겨 징수권을 잃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이 산정된 서울 단지는 53곳으로 총액은 4조3596억원이다. 경기·대구·부산·전북을 포함해 자료에 제시된 79개 단지의 예상액 5조3336억원 가운데 81.7%가 서울에 집중됐다. 용산구 한강맨션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약 7억2000만원이다.

사업 초기에 안내받은 예정액은 준공까지 주택가격과 공사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항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준공 뒤에도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조합원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 판단할 때 향후 납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조합원의 자금 부담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재건축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시기에 만든 제도"라며 "지금처럼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진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추가분담금에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부담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IPARK현산, 능곡에 4000가구 타운 조성

경기 고양시 능곡 3구역 시공권 확보
5구역과 연계해 브랜드타운 조성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고양시 능곡 일대에 4000여 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에 시공권을 확보한 능곡3구역을 인접한 능곡5구역과 연계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능곡3구역 재개발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도 2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열린 고양능곡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총 634표 중 565표를 얻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찬성률은 89.1%로, 도급공사비는 5174억원 규모다.

고양능곡3구역 재개발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6 일대 약 8만90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16개 동, 총 125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대곡역을 이용할 수 있다. 대곡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다. 인근에는 능곡초·능곡중·능곡고가 있으며, 약 17만5000㎡ 규모의 지도공원과도 맞닿아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능곡3구역을 주거와 녹지, 주변 생활권이 연결되는 '포레스트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과 협력해 역세권 복합개발과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기존 1258가구를 약 2000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7322억원을 기록했다.

/이현진 기자

세부담 커지나…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 논의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공청회
공시가격 현실화, 세부담 영향 클 것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논의한다. 지난 4년간 묶여 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집값과 세법개정안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부동산공시법은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시세반영률 목표치와 달성 계획을 세우게 하고 있다. 공청회에 앞서 13일까지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내놨지만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정부는 지난해 공청회 당시 '90% 목표'는 유지하지만 5년 단위 로드맵을 새로 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진 만큼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로드맵은 미뤄지더라도 당장 내년 현실화율 조정 등 동결 기조가 깨질지 여부다. 세율 인상보다 공시가 현실화가 더 영향이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시가격은 세금의 출발점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준도 공시가격이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원 아파트에 현재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13억8000만원이다. 이 비율이 75%로 오르면 공시가격은 15억원이 된다. 시세가 그대로여도 과세 기준이 9% 가까이 높아진다. 여기에 시세 상승분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 가팔라진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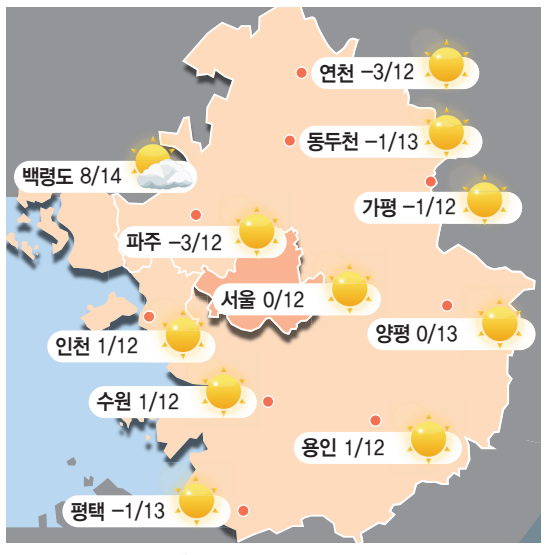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6 | 해짐 / 17:25

11월
10일 (火)
음력 : 10월 2일

수도권 날씨
0 ~ 1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삼성물산, 2.4조 목동 13단지 재건축 수주

최고 49층, 3757가구 대단지로
100% 4베이, 대규모 공원 조성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래미안' 아파트가 들어선다. 삼성물산이 공사비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목동13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다. 기존 2280가구 규모의 단지는 최고 49층, 3757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7일 열린 목동13단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가결돼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신자산신탁이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래미안 모브13 투시도. /삼성물산

목동13단지 재건축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7 일대 17만8919㎡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21개동, 총 375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2조3763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새 단지명으로 '래미안 모브13(RAEMIAN mo 13)'을 제안했다. 유일함을 뜻하는 '모노(mono)'와 목동(mokdong)의 앞 글자를 딴 '모(mo)', 프랑스어로 녹색을 의미하는 '베르(vert)'의 '브(ve)'를 결합한 이름이다.

모든 가구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조합원 가구에는 100% 4베이(Bay) 이상의 평면 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구별 평면은 기존 8개 평형·40개 타입에서 11개 평형·79개 타입으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 중앙에는 대규모 공원인 '센트럴 파크'가 들어선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본격 시동…"日반도체 장비업체에 발주 계획 제시"
▲이란 "先종전 아니면 지옥불"…美 "어이없는 요구, 돌파구 없어" /사진 뉴시스
▲中 APEC 임박, 미국산 상품 관세 2개월간 10% 유지
▲교황, 폴란드 총기난사 희생자 애도…"평화·화합을"
▲中, 네덜란드 '사이버 공격' 주장에…"근거없는 악의적 비난"
▲트럼프, UFC 사장 대변인직 제의 하루 만에…"농담이었다"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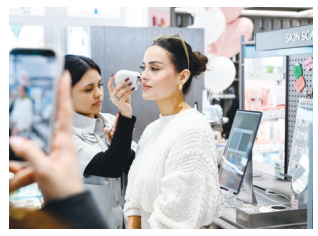
metro® Life

제6031호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연말 특별하게
프리미엄 다이닝
인기 높아진다
L1

K-뷰티
일시적 유행 넘어
미국시장 정착
L2



혈당관리부터 질환 예방까지… 기술로 만든 '건강 안전망'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헬스케어는 '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미션 아래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2년 설립 이후 비대면 건강관리, 의료 데이터 표준화, 병원 디지털 전환 등 첨단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PASTA)'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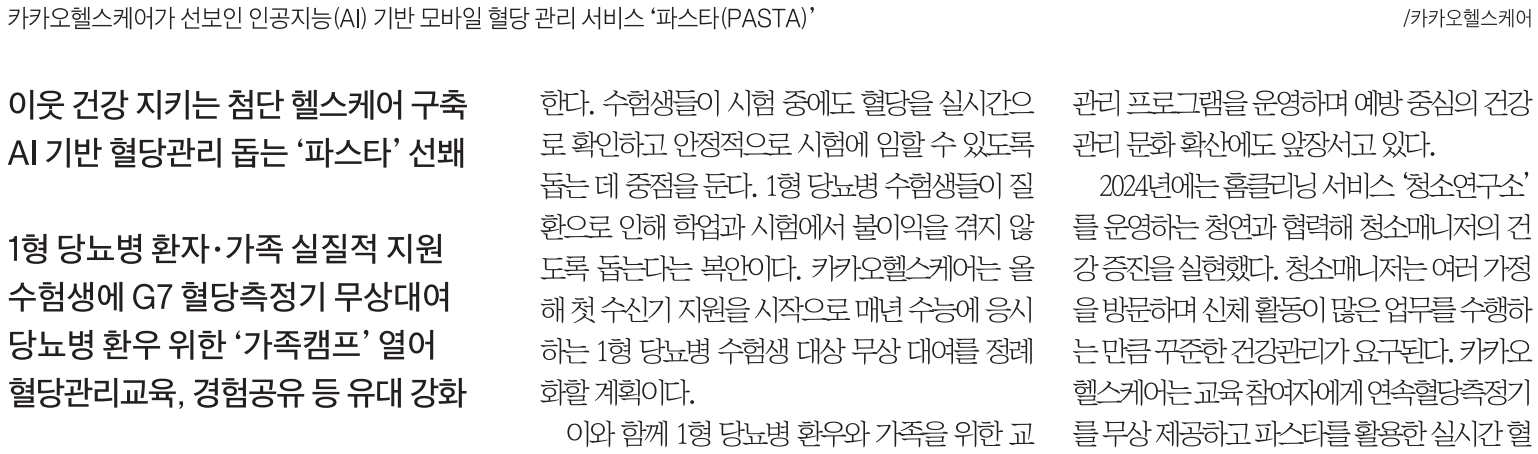
파스타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연동해 실시간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식사와 운동, 수면, 인슐린 투여 등 생활 습관 정보도 함께 기록해 일상 속 혈당 관리를 돕는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파스타를 통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이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수능 날도, 가족 캠프도… 당뇨 환우 곁을 든든하게

카카오헬스케어는 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 활동을 펼친다. 오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1형 당뇨병 수험생을 대상으로 덱스콤 G7 연속혈당측정기 전용 수신기를 무상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1형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자기기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수능 시험 중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혈당 확인이 어려워 관리에 한계가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별도의 전용 수신기를 제공한다. 수험생들이 시험 중에도 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1형 당뇨병 수험생들이 질환으로 인해 학업과 시험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는 복안이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올해 첫 수신기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능에 응시하는 1형 당뇨병 수험생 대상 무상 대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헬스케어가 선보인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PASTA)' /카카오헬스케어

이웃 건강 지키는 첨단 헬스케어 구축
AI 기반 혈당관리 돕는 '파스타' 선봬

1형 당뇨병 환자·가족 실질적 지원
수험생에 G7 혈당측정기 무상대여
당뇨병 환우 위한 '가족캠프' 열어
혈당관리교육, 경험공유 등 유대 강화

청연과 협력, 청소매니저 건강증진
지역사회 주민 만성질환 예방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건강한 세상 실현



카카오헬스케어가 경기도 3개 보건소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혈당관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1형당뇨환우회·한국췌장장애인협회 주최 '2026 가족 캠프'에 카카오헬스케어가 동참했다.



덱스콤
연속혈당측정기(CGM)
G7 수신기

이와 함께 1형 당뇨병 환우와 가족을 위한 교류 및 교육 활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7월, 한국1형당뇨환우회와 한국췌장장애인협회가 주최한 '2026 가족 캠프'에 덱스콤과 함께 후원사로 참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열린 이 행사는 1형 당뇨병 환우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혈당 관리 경험과 학교생활, 돌봄 부담, 자립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의료기기 활용과 혈당 관리 교육을 비롯해 장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가족과 당사자 간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후원을 통해 환우와 가족들이 질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청소매니저부터 지역 주민까지…생활 속 '건강 울타리' 넓힌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업무 환경과 생활 여건으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혈당 관리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4년에는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를 운영하는 청연과 협력해 청소매니저의 건강 증진을 실현했다. 청소매니저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신체 활동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꾸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카카오헬스케어는 교육 참여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무상 제공하고 파스타를 활용한 실시간 혈당 확인과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청소매니저들은 자신의 혈당 변화를 직접 살피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협력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고양시 덕양구·광주시·포천시 보건소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혈당관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양측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디지털 혈당 관리 프로그램인 '안티-혈당 스파이크' 등을 운영했다. 참여자의 건강검진 결과와 혈당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영양·운동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남원시보건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의료혁신센터와 협력해 디지털 건강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다. 만40세 이상 중·장년·고령층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파스타 앱을 이용해 식이 및 기본생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대사질환 고위험군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제공해 개인별 맞춤 식이 상담을 진행한다.

카카오헬스케어 김준환 부사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U-23 야구 대표팀, 세계선수권 조별리그서 베네수엘라에 0-7 완패
▲'모레노호 발탁' 서울 손정범, 첫 태극마크 이어 첫 이달의 영플레이어 /사진 뉴시스
▲한국 남자 사격 대표팀, 세계선수권 스탠다드 권총 단체전 은메달
▲창덕궁 돈화문, 본격 해체 시작…2028년 보수 완료
▲여행 예약부터 카드 결제까지…관광공사, 동남아 방한객 유치망 확대
▲거문고 명인 허윤정, 佛몽펠리에 국립오페라 무대 선다

SAMSUNG

여러분이 계셨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12년 만의 우승,
한결같은 믿음 덕분입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패배의 순간에도
환호하고 격려하며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열정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2026 한국시리즈 우승